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1 11/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800

FAX : 22

e-mail

홈

어린이 권리 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별권 84호 2001년 11/12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물론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1년 11월 15일

2	권두언	보육과 가족복지	김인숙
4	보육정책 1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제도	이인희
7	보육정책 2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윤경
10	보육정책 3	독일의 보육제도	윤선영
24	특집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캠페인	편집부
35	현장교육 1	요리를 통한 통합 교육 활동	전경숙
46	현장교육 2	TV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김미나
54	인물탐방기	천미애 선생님과 만남	김영금
57	어린이와 건강	어린이집의 건강관리 사례발표	심현정
68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아웃사이드의 아이들	편집부
69	영아들과의 하루	단풍이 곱다군요	박인혜
70	육아일기	새로 시작하며...	전경숙
72	좋은 그림책소개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고영미
74	세상읽기	21세기의 전쟁과 세계의 바람	박상희
76	사이버정보망	박물관 사이트 안내	편집부
87	목소리 1	늘 처음처럼	김숙연
90	목소리 2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진실
91	알림란		편집부
92	보육계동향		편집부
94	소식과 소식		편집부

보육과 가족복지

김인숙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 하면 내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80년대 대학생들이 달동네 어디선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다. 그 때는 그런 모습이 가난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을 대신하려는 선의 정도로 보였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 선의는 '뜻'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조직화되었고, 이름하여 '지역사회 타아운동'이 그것이다.

보육의 문제는 흔히 아동의 문제로 인식된다.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안 것은 '보육'은 '여성'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와 너무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육은 아동을 보살피는 여성의 '보살핌 노동'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대다수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요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자녀에게 보살핌 노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은 여성의 아동에 대한 보살핌 노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수용하여 보살핌 노동을 대신할 자원과 인력을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 그 형태도 다양하여 가장 기초적인 탁아시설의 확보에서부터 아동 보육기간 동안 휴직과 그에 상응한 급부를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가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는 당연히 그 노동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의 문제는 '가족'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보육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온 가족의 문제인 것이다. 국가는 노동력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가족 보존을 필요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가족정책은 바로 인구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한 국가의 가족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아동에 대한 보살핌 노동을 국가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정도와 방식 여하에 따라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의지와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즉, 국가가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살핌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보육의 문제는 흔히 아동의 문제로 인식된다.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안 것은 '보육'은 '여성'의 복지와 '가족'의 복지와 너무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복지국가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육의 문제야말로 가족복지 혹은 가족정책의 핵심적 이슈이고 이는 곧 그 국가가 어떤 종류의 복지국가이냐 하는 것을 결정 지운다는 말이 된다. 대부분의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취업노동에 대한 보장책(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제도상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이제 남아 있는 영역은 취업노동이 아닌 "보살핌 노동"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바로 이 보살핌 노동을 복지제도로 제도화한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보육의 문제는 단순히 아동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0년대 가난한 달동네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보살핌 노동을 제공한 그 선의의 사람들은 아마 이 문제가 아동의 문제만이 아닌 어떤 총체적 문제임을 직관적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보육문제를 아동복지의 문제로만 보았다면 이제 관점을 선회해야 할 때가 왔다. 보다 넓은 시각으로 멀리 내다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회가 여성의 노동력을 긴급히 필요할 때가 되면 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동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한다. 우리는 가능한 그 기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제도

이인희 · 본회 정책위원

아래의 글은 월간 '작은책' 10월호에 실린 글로 글쓴이의 허락을 받고 소개합니다.

지난 8월 8일 보건복지부는 '보육 사업 종합 발전 계획안'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진행할 이 안에는,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 확대, 영아, 장애아, 방과 후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보육 교사와 관련한 자격제도, 처우, 재교육 등에 대한 개선 안이 담겨 있다. 이는 '한국보육교사회'와 현장에 오랜 기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어 환영 할 만 하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육사업 종합발전 계획안'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시행이 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1991년에 제정되어 시대적 변화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없이는 '보육사업 종합발전 계획안'은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을지, 또 보육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보육제도의 문제점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아동법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21조 예서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9월 말 현재, 전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시설은 전체 시설의 6.7%에 불과하고 민간 시설(가정 보육 시설 포함)이 전체 시설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수에 있어서는 국·공립 시설이 14.8%, 민간 부분이 84.2%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지원 시설은 공립으로 간주한다 해도 국·공립 시설이 20%를 넘지 못하니 시설이나 보육 아동의 대부분을 민간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총 보육 재정 (정부 보육 예산 (시설 설립비+시설별 지원+아동별 지원)+학부모 보육료 부담액)중에서도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체로 20% 이하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의 보육 사업이 '사회적 서비스' (Social service)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도한 민간 의존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보육

이처럼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가 민간 시장에 맡겨져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은 전적으로 부모의 보육료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비용 문제로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교사 인건비나 급·간식 비용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란 육아·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의 문제는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그러니 보육 비용을 부모에게만 부담시키려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로 볼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많은 단체와 보육 전문가들은 보육 서비스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지 않는 공익적 서비스여야 하며, 또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아동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좋은 보육 환경에서 좋은 교육이

보육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시설 자체의 안전성과 청결성, 편리성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접하는 인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하나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다. 아직 뒷처리도 못하는 유아를 교사 한 사람이 스무 명씩 돌본다는 것은 교사의 어려움 이전에 유아의 보육 환경으로도 마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의 자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1시간에 달하며 급여 수준은 불과 60만 원 정도다. 그로 인한 잦은 이직은 전문적으로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대학이나 전문대에 보육학과가 생기고 난 후에도 단기 과정을 통해 대량으로 배출된 보육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어 보육의 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 높다. 또한 자격 기준 강화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 교사가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자기 발전의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급여 인상, 법정 근로 시간 보장이 가장 시급하며 휴가 사용, 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체교사 인건비도 지원되어야 한다.

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이

아이 낳기가 무섭다고 한다. 낳는 데도 돈이 들지만 키우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려면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줄여 주는 '차등보육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만5세 아이가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어디에 있든, 교육을 받고자 했을 때 초등 학교라는 새로운 기관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무상 보육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영아, 장애아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도 충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 휴일, 시간 연장제, 24시간 따위 다양한 보육 형태가 필요하다.

육아 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영아 보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영아 전담 시설의 기준을 3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낮추어 현재 가정보육 시설로 운영 중인 곳을 활용하여 집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할 수 있는 시설과 인적 자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아이들의 행복권을 찾아주자

학교가 끝나면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 텅 빈집과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 아직은 성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와는 다른 육구와 지도가 요구되는 학령기 아동을 위해 방과후 보육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보육 문제는 아이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는 선뜻 나서지 못한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보육 지원 내용이 많이 좋아졌다. 서울의 경우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민간 시설에도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등 법에서 못 하는 부분까지 담당해 주고 있어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인천은 보육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인천 여성노동자회, 인천 공부방연합을 주축으로 많은 관심 있는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열고 공청회와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보육의 큰 틀인 영유아보육법을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개정하고 각 지자체 별로 보육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건강한 시민 단체들과, 학부모, 교사, 시설장, 관계 공무원들이 다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현재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시설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매년 이수 교과목을 확인하는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수교과목의 종류와 수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일선 시설에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관련학과 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보육관련 교과목이 아닌 관련학과의 개설 과목을 이수 교과목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 보육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나 유치원교사가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되고 이에 따라 경력관리가 되는 것에 비해 보육 교사들은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지도 않고 경력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동안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육시설이 전국에 2만여 개소에 이르고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4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종사자의 자격기준이나 자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 자격에 관한 근거인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가자격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기준, 자격검정, 자격등록과 자격증 교부,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검정, 자격등록, 자격증 교부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지 못

하다. 자격은 개인의 인적가치, 직업적·전문적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미비는 열악한 처우와 낮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아울러 제기된다고 하겠다. 정부가 지난 8월 보육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선진 보육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보육서비스의 수행자인 보육교사의 자격제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자격제도의 미비는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고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가로막아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장애가 된다. 정부는 보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을 기한다면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최소 전문대이상의 학력 수준과 훈련기간을 거친 사람이 전문적인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자격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등록과 자격증 교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격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자격관리의 문제이다. 즉 임면보고와 경력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한 보육교사가 전문대 유아교육학과에 편입하기 위해 문의해 본 결과 경력증명서 발급이 구청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학교로부터 받았다. 학교의 입장은 관공서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때는 신뢰할 수 있으나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고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명의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임면보고 폐지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개별 시설에 맡긴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임면보고 폐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면보고의 폐지는 보육시설의 관리와 지도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를 보살피는 일은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일이며 특히 종일 가정을 대신하여 양육, 안전, 교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서비스(특히 가족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임면보고도 공공기관을 통해 되어야 한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임면보고 폐지와 경력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졌을 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시설에서 무자격 교사를 채용할 위험이 있고

(이는 바로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둘째, 교사의 경력관리가 전적으로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어

이를 악용해 교사의 처우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셋째, 경력증명서 공신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고 네째, 보육교사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자부심이 현저히 저하될 것.

다섯째,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시설종사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

자격제도는 자격을 인정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걸맞은 대우와 관리, 자격취득에 따른 권리의 보장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면보고는 재교육과도 관련이 있다. 임면보고를 통해 경력관리가 이루어지면 시기별로 필요한 재교육을 확인 받고 보수교육과 승급교육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어느 직업이든 재교육은 자신의 직업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미래 성원을 키워내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지속적인 재교육은 필수적이다. 많은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경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승급교육이 미루어지거나 필요한 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다른 과제도 많지만 자격제도 확립과 관리체계의 마련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보육의 발전이 공공성 확보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공공성은 비용분담의 공공성, 운영체제와 관리의 공공성을 함께 담보해야만 가능한 문제이며 특히 서비스제공자인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확립을 통해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보육제도

윤선영 ·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아래의 글은 지난 10월 31일 본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공동 주최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제도 비로 세우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것으로 윤선영 선생님께서 다시 수정 보완하신 글입니다.

I. 서론

독일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점은 통일 이전 구 서독의 경우 가족에 우선적인 책임을 두고 있었던 반면, 구 동독의 경우 종일제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 생계비 지원, 주택 및 임신과 양육을 위한 가족지원, 직업여성의 재취업 보장, 유아기 어린이들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에 대한 권리(1996 새로 마련, 1998년부터 시행) 등을 강화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아동의 삶, 자녀를 둔 여성의 삶, 가족지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Vereinbarkeit)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60% 이상이 영아기(만3세 미만)의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제도와 지원은 실제적으로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중앙 집중적인 정부체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 나라와는 달리 강력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 각 주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방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보육에 대한 수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지원과 수행에 있어서 연방(Bund), 지방(Land), 지역구(Kreis), 당사자(부모)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서로의 결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ndergarten 지원금은 주, 설립자, 부모가 어떻게 서로 분담할 것인지 각 주는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적인 상황과 다른 행정적인 배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보육제도를 살펴보는 일은 '한국의 현재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보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공유되었지만 실천적 대안이 아직 충분히 모색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부모의 수입에 따른 차등적 부담을 통해 일원화된

체제로 종일제의 보육기능과 반일제의 유아교육 기능이 통합된 독일 보육제도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대안을 발견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공교육화가 이루어져 있으나, 유아교육은 아직 공교육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 이유는 70년대 유아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아기 아동에게 학교와 같은 수업과 교육행위를 거부하고 유아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부모, 교육자, 학자 등의 반대에 의한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차라리 그 때 유아교육도 공교육화 했더라면 부모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텐데 하는 반성의 논의도 일지는 없다.

필자는 독일의 보육제도를 아동과 관련된 모법인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직장 여성인 어머니를 위한 모성보호법, 그리고 구체적인 한 주(브란덴부르크)의 보육법(Kitagesetz)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보육제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시사점을 찾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독일의 보육제도 관련법

1. 보육법의 모법 -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각 주의 킨더가르텐법을 위한 모법이며 바탕이 되는 법은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이다 ("사회복지법서(Sozialgesetzbuch: SGB)"은 다시 이 법을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법이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건강한 발달과 성장,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문제, 제도적 책임을 진 청소년국(Jugendamt)의 과제, 자녀양육을 위탁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설립, 상담 및 교사양성교육, 경제적 지원, 벌금과 처벌사항이다.

가. 양육의 책임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JHG)에서는 양육에 대한 권리가 자연스러운 부모의 권리이며, 부모와 다른 양육기관들은 미성년자(18세 미만)들의 긍정적인 삶의 조건을 형성하여 아동 및 가족에게 따뜻한 환경을 지키고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 1장 3조).

나. 보육기관(가정보육(Tagesmutter, Tagespflege), 시설보육기관(Kindertagesstaette)/유치원(Kindergarten), 방과후보육기관(Hort 등)의 과제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을 하는 곳에서는 아동의 인성 발달에 있어서 "자기책임적인 능력"과

“공동체적 능력”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과제는 아동의 보호(Betreuung), 인격형성(Bildung), 양육(Erziehung)이다. 과제수행은 교육적·조직적으로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Bedürfnisse)를 지향해야 한다. 양육권자는 교육시설의 실제적인 제공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22장 1, 2, 3조). 영아기 아동의 발달촉진을 위해 양육권자는 보육교사의 가정에서 또는 아동의 가정에서 양육을 위한 소개를 받을 수 있다(23장 1조). 만 3세부터 취학 이전까지의 유아는 킨더가르텐에 대한 요구를 지닌다. 만 3세 미만의 어린이와 취학아동의 경우 필요에 따라 교육시설에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지원을 담당한 공공기관은 필요에 따라 종일제의 자리가 제공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24장).

다. 보육비용

각 주는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총 경비를 달별로 결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각 가족이 부담하는 경비는 첫 아이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총 보육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되, 두 번째 아이의 경우 1/4를 부담한다. 민간 설립자(사회단체 포함)의 경우 국공립 시설 설립자와 함께 보육비용의 부담정도를 서로 합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의 법에 따른다.

라. 연관가족지원 제도 양육 및 부모 또는 파트너관계에 대한 문제 상담

사회복지적 가족지원은 가족이 지닌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가족의 갈등과 위기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접촉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자기도움(Selbsthilfe)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31장).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의 발달 상태에 근거하여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은 다른 가족(Familienpflege)에서 또는 시설(5명 이상일 경우: Grosspflegestelle)에서 가족과 같은 24시간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33장). 기타 장기 보호시설(Heim: 예) 고아원)과 같은 형태도 있다.

마. 장애아 보육

영적·신체적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의 위험을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은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응급 형태, 교육시설이나 반(半)치료시설에서 낮과 밤 또는 다양한 거주형태로 적절한 성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 치료를 함께 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전문가의 인적 도움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취학 전의 아동인 경우 치료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공동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통합교육)(35장a 1, 3조). 즉, 장애아 통합은 교사대 아동수의 조절, 슈퍼비전, 심리치료전문가와의 협동작업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지원, 재교육 및 보수교육, 취업 지원, 사회생활 속에서의 참여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독일연방사회복지법: BSHG 40장).

바. 설립허가

아동 및 청소년을 그의 가정을 떠나 자기 집에서 규칙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정보육).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1. 청소년국에서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요청을 받은 이, 2. 후견인이거나 보육교사, 3. 세 번째의 친인척, 4. 8주 정도만 돌볼 때, 5. 학생 및 청소년 교환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입양인도 허가가 필요 없다. 청소년국은 허가를 받고 아동 및 청소년을 돌보는 사람에게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한다(44장). 교육시설의 설립자는 보육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 없는 자는 1. 청소년회관, 청소년교육원, 유스 호텔, 또는 임간학교를 운영하는 자, 2. 학생고아원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학교를 보살피는 자, 청소년지원 과제 영역 밖이지만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 있는 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자 등이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제 45장).

사. 설립자 및 보육관련자 교육

청소년국은 후견인과 보육교사에게 교육, 돌봄, 보살핌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제 53장). 청소년국은 고유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자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작업과 사용 및 전달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 65장). ‘청소년지원 위원회’는 3/5이 국공립 청소년지원 설립자의 대표(공무원)들로, 2/5는 자유(각종 사립) 청소년 지원 설립자로 구성되어 청소년단체나 복지단체들의 제안을 참고한다.

각종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중 교외가 설립한 시설이 63.5%나 된다.

청소년지원 위원회는 아동과 그의 가족이 처한 현재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청소년지원을 발달시키고 자극하는 일, 청소년지원 계획, 사립 청소년지원을 촉진하며, 청소년지원에 관련된 일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 청소년지원 위원회’는 2/5가 주 청소년국이 제안하고 인정한 자유(사립) 청소년지원 설립자가 되며, 나머지는 주의 권한에 의해 결정한다(제 71장). 국공립 청소년지원 기관의 설립자(공무원 포함)는 시대에 맞는 청소년지원과 근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그에 적절한 직전교육이 충족되어야 한다. 1988/9년까지 (구 서)독일은 전체적으로 질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직업의 전문화, 전공화, 아카데미화의 움직임에 따라 그 전문가의 수가 확산되어왔다.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교육학자, (보육)교사, 심리

학자, 교육학 석사, 치료교육자, 특수교육자, 정신치료학자, 청소년 심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소아과 의사, 아동(가정)보육사, 가족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학자 등을 말한다. 학자들은 보육교사(전문학교 졸업)들과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교육학 석사와 교육학 석사들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담당한 직업에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Muender, 1999: 550). 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부서장은 전문교육에 더하여 프로젝트와 사회사업경영, 경영학, 조직과 직원발달에 대한 교육과 사설 청소년 지원기관에서의 직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사설 기관의 설립자도 역시 유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국과 주 청소년국은 임직원들이 계속교육과 현장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사립인 경우도 설립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보육을 하거나, 기관의 직원 수, 어린이 수, 자리 수 등에 대하여 설립자가 잘 못 또는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 DM까지의 벌금을, 허가 없이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3000 DM까지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104장 2항). 만일 위와 같은 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영적 발달이 손상되었을 경우와,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시에는 벌금과 함께 1년까지의 형벌에 처해진다.

2.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독일에서 자녀를 둔 여성이 현대에 직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첫째, 남성의 수와 미혼의 직장여성 수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도 생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중상층 여성들에 의한 여성운동은 사무원, 간호사, 교사 등의 직업이 "여성 직종"으로 부각되면서 여성들이 이러한 직업을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그 이후 국가의 재건을 위해 헌신한 "폐허의 여성들(Truemmerfrauen)"에 의한 경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적 성장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Haertel, 1992). 그리하여 1987년 직업여성이 전체 여성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어린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삶을 직장-가정-다시 직장이라는 전형적인 3단계 모델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임신부와 출산휴직에 대한 지원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서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대안적 선택은 파트타임의 일을 가짐으로서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었다.

가. 임신부 및 출산모 지원

모성보호법은 면직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누구든 출산 이후 다시 복직에 대한 가부를 알려야 하며 원할 경우 반드시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임신부는 예정된 출산일 6주전부터 보호기에 들어간다. 출산 후 보통 8주(2명 이상의 아기(예: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2주) 동안 휴직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에서 모성지원금을 일당 25DM를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는 그 나머지 실제수입(Nettoverdienst)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나. 양육휴직과 양육비 지원, 특별휴가

1986년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명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으며, 1992년부터는 양육휴직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3회까지 가능하다. 입양한 경우에도 같은 집에서 양육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리는 동일하다. 양육휴가 후 복직을 할 경우 고용주는 동일한 질과 보수를 보장하는 자리를 주어야 한다. 또한 복직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방 교육부). 만 2세 이후 킨더가르텐을 보내는 자녀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출산 후 양육비는 "연방양육지원금법"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고 600DM 정도이며 1993년부터 24개월까지 지불된다. 부부의 연간 수입이 100,000DM 이상일 경우와 편부/모의 수입이 75,000DM 이상일 경우 첫 6개월간의 양육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최소 수입 규정에 따라 받게 된다(Informationsblatt zum Bundeserziehungsgeld-gesetz, 2000). 양육비를 지원 받는 부나 모는 주당 19시간까지 일을 해도 된다. 1992년 이후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부모 중 한 명 당 연간 10일의 특별 휴가를 얻을 수 있다(편부·모의 경우 20일). 2명 이상의 자녀가 아플 경우 25일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편부·모의 경우 50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가 보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다. 보육기관 지원

독일의 부모가 보육기관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족 기능의 쇠퇴로 말미암아 가족이 사회화를 위한 장소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또래 아이들과의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숙제 지도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방과후 아동보육: Hort)(Born, 1989). 독일의 보육기관 총 명칭은 시설일 경우 "Kindertagesstaette", 가정보육일 경우 "Tagesmutter"이며, 영아기 어린이들을 돌보는 Krippe, 유아기 어린이들을 위한 Kindergarten(만일 제 포함),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인 Hort가 있다.

3. 킨더가르텐법

킨 더 가 르 텐 법 (Kindergartengesetz)은 보 육 법 (Kitagesetz: Kindertagesstaettengesetz)이라고도 하며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명명하고 있다. 연방국가로서 지방별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 전체를 이해하는데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차이나지는 않고 유사한 점이 많다. 도시로 갈수록 일하는 여성 수가 많아 종일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작은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역일수록 반일제가 많지만 종일제에 대한 항목이 항상 들어 있으며, 방과후 보육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혼합연령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예: Kindergartengesetz fuer Baden-Wuerttemberg, 1999).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권리도 공통된 사항이다. 공통된 사항으로 필요성에 의해 사회복지부와 문화부, 교육부 등 다른 부와의 협력작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자와 청소년국은 보건원과의 협력작업으로 1년에 1번 씩 예방접종 여부와 함께 정기진찰, 그리고 치과진찰을 의무화하고 있다(무료). 담당 부서 또는 청소년국은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문과 전문적인 내용을 돕는 전문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교육정과 보조금의 내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지침에 따로 명시한 곳도 있는가 하면 보육법에 모두 명시된 곳도 있다. 여기에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보육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아동의 권리(보육법 제1장)

보육시설은 가정과 직업의 합의(Vereinbarkeit), 아동의 행복과 발달에 기여한다. 만 5-6세까지의 아동은 부모의 사정(직업, 질병, 교육, 기타 특별한 사유)이 있을 경우 보육시설의 한 자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 2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아동은 보육시설에서 양육, 인격형성(학습), 보호,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의 혜택을 받는 아동의 권리는 학령기 이전까지는 최소 6시간, 학령기 아동은 최소 4시간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모의 사정에 따라 보육시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나. 용어정의(제2장)

보 육 시 설 (Kindertagesstaetten)이란 청소년 지원의 사회교육적(sozialpaedagogische)인 가족보완 시설로서 장애아동과 장애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낮 동안 보살피고 교육하는 곳이다. 보육시설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가정보육(Tagespflege)은 어린 아동(주로 영아들이 이에 속한다 - 필자 주)을 보육교사의 가정이나 아동의 가정 또는 다른 공간에서 보살피는 곳이다. 보육은 기타 아동 및

청소년지원, 학교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와 관련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회교육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의 교육학으로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장애인 복지, 알콜 및 약물중독중인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를 내포하는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의 교육학은 사회교육학에 포함된다.

다. 보육시설의 과제와 목표(제3장)

보육시설은 고유한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보호(Betreuung), 인격형성(Bildung)

독일어의 Bildung은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학식 등 인간의 모든 문화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양육(Erziehung) 및 보살핌(Versorgung)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다. 보육시설에서의 인격형성은 아동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지지하고 어린이다운 인격형성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테마를 포착하여 확장한다. 그것은 가정교육을 보완하고, 가정에서의 경험 이상을 지지해 준다. 보육시설 고유의 인격형성과 양육위탁은 또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적절한 형태로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것도 포함한다. 보육시설이 가지는 특별한 과제란 1.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대한 제공, 양육에 대한 제공, 보호와 보살핌을 위한 제공에 의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한다. 2. 아동의 욕구에 따라 삶의 장(場)에서 경험, 행위,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3. 아동의 자기책임성과 공동체능력을 강화하고, 연령과 발달에 적합하게 시설의 제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4.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능력을 함양하고, 영적, 음악적, 창조적 힘을 지원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한다. 5. 여아와 남아의 연령 및 발달에 근거한 다양한 생활상황, 문화, 세계관의 배경을 고려한다(예: 외국인 자녀). 6. 평등하고, 파트너적, 사회적, 민주적인 상호관계를 촉진하고 장애가 있거나 없는 아동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7. 건강한 영양과 보살핌을 보장한다. 8. 환경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생태학적으로 구성된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과제와 목표의 실천은 우리 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보육내용의 경우와는 달리 각각의 보육시설에서 나름대로 작업한 교육구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라. 참여의 원칙(제4장)

보육시설은 가족 또는 기타 양육권자와의 협력작업을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작업은 아동의 참여와 양육권자의 동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발달장애에 대하여는 보건원의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서비스를 알려 주어야 하며, 학교와의 협력작업을 통해 학교로의 전환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 민주적인 아동양육은 부모 또는 기타 양육자, 교사가 시설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민주적인 상호영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 설립자(소유자)의 참여(제 5장)

설립자는 위에서 언급한 협력작업을 지원해 주고 자극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설립자는 또한 보육시설에서 가지는 각자의 과제를 인식하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산하 보육시설들 간의 전문성을 일치시켜야 한다.

바. 부모의 참여(제 6장)

부모와 기타 양육권자는 보육시설의 컨셉트발달에, 조직적인 작업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참관, 초기 적응시기의 참석, 공동행사 등의 참여는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다. 부모회를 열도록 하고 있고, 한 보육시설 내 전체 부모회도 열린다. 부모회에서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기여한다. 부모회에서는 설립자와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직원은 부모에게 교육적 작업에 대한 근거, 목표, 방법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사. 보육시설위원회(제 7장)

모든 보육시설은 각기 보육시설위원회를 결성한다. 구성원은 설립자가 지명한 사람들, 교직원 중에서, 그리고 부모회에서 대표를 이렇게 3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보육시설위원회는 교육학적인 것과 조직적인 것에 대하여 다루며, 특히 보육 내용과 보육시간에 대한 것을 상의한다.

아. 보육시설의 조직 및 제공

보육시설에서는 단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 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단, 단일연령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다른 연령의 집단과의 통합적 경험이 가능해야만 하며,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신뢰적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조직해야 한다(제 8 장).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도 일반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지역구 또는 담당관의 부서에서는 어떠한 형태든 필요한 시설의 형태와 자리 수(아동 수)에 대한 제공을 해야 한다. 설립자와 시설의 교직원은 아동 및 가족의 종교나 세계관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제 12 장).

자. 시설의 개방과 아동보육시간(제 9장)

보육시설은 아동의 리듬적인 생활, 부모의 노동시간, 부모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베를린의 경우 최대 12시간). 아동 개인이 머무는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부모의 노동시간이 10시간이 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종일제가 아닌 경우 최소 4-5시간).

차. 교직원 구성(제 10장)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은 만 3세까지의 아동의 경우 7명 당 1명(베를린의 경우 종일제일 때 교사 1인 당 만 2세까지는 6명, 만 2세는 7명, 만 3세 이상 학령기 이전까지 10명), 3세 이상에서 학령기 이전의 아동의 경우 13명 당 1명,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 15명 당 1명이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보육법에서는 구체적인 교사자격 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Baden-Wuerttemberg의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다: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교사 포함)는 사회교육학(Sozialpaedagogik)을 전공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1. 주에서 인정한 사회교육학자와 교육학 석사, 전문학교를 졸업 한 사회교육학 석사, 2. 주에서 인정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와, 청소년 교육과 고아 원교육 분야를 전공한 주에서 인정한 교사, 3. 주에서 인정한 가정보육교사, 6. 보육시설에 장애아 통합그룹이 있을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소아간호사이다. 원장과 담임교사의 자격은 1. 위의 조항 1, 2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1년 이상 보조교사 역할을 한 경험이 있는 위의 조항 1, 2에 해당하는 자, 원장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 원장의 과제는 1.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가정교육을 촉진하고, 2. 부모와 협력작업을 하며, 3. 위의 1, 2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접촉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또한 원장은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보조교사로는 전문가 자격 1, 2와 특히 가정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종일제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회교육자, 보육교사, 가정보육교사 교육과정을 밟으며 실습을 나온 사람들이 보조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요리사 및 기타 행정업무를 맡는 직원은 보육시설의 교육과 조직방침에 따라야 한다(Gesetz- und Verordnungsblatt fuer Berlin, 1998, 제 8장 4 조).

카. 건물과 환경구성(제 13장)

보육시설의 장소, 건물, 공간구성, 실내·외 환경은 제 3 장의 충족시켜야 하고, 어린이들에게 적합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m²라고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다(Gesetz- und Verordnungsblatt fuer Berlin, 1998, 제 8 장 1조).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베를린의 보육법에서 특별히 명시된 것으로는 건물이나 환경에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재료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타.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설립자의 재산, 부모의 보육료, 정부(주, 지역구 등의 이행의무기관)의 보조금에 의해 조달된다. 정부는 설립자에게 보육시설의 교육자에게 드는 경비의 84%의 보조금을 준다(제 16 장). 부모의 보육료는 수입에 따라, 자녀의 수에 따라,

그리고 합의한 보육시간에 따라 달라진다.(제 17 장). 가정보육은 정부의 소개에 의해 마련된 경우 정부가 그 설치비용을 담당한다. 보육운영비는 부모의 보육료와 정부에서 부담하는 식비로 결정된다.

주 정부에서 연간 한 반마다 지불하는 보조금(인건비와 운영비)은 Bad-Wuerttemberg의 경우 보육시설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반일제: 28,000DM, 일반(오전, 오후에 몇 시간씩 여는 곳): 37,000DM, 연장보육시설, 통합교육보육시설, 보육시간이 각기 다른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 47,000DM, 영아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함께 보육하는 혼합연령 보육시설: 56,000DM, 종일제 보육시설: 70,000DM.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설립자가 사립인 경우 자체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파. 연장교육(보수교육)과 모델연구(제 19 장)

정부의 관할 부서는 "사회복지법서"에 따라 연장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모델시범과 상담 제공을 통해 보육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설립자는 교직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지원), 교사 역시 설립자가 원하는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보수교육, 교직원회의, 부모 회의, 교육준비 및 정리(연구) 시간 등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추가로 지급된다(예: 베를린의 경우 명시되어 있음).

하. 기타 수행에 관한 규칙(제 23 장)

주 정부와 주 의회는 교직원의 수와 질적 수준, 보조금을 위한 보육비용과 범위, 교사월급 보조금, 가정보육 제공 사항과 가정보육교사의 수준, 보육시설 위원회의과제와 선거, 아동집단의 크기와 공간에 관한 사항을 법지침규정으로 정한다. 주 정부는 관할부서, 지역구연합, 교회와 같은 복지단체연합과 보육시설의 교육작업과 교직원의 연장교육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III. 시사점 및 제언

독일의 보육제도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아동교육, 모성보호, 일하는 여성정책, 가족문제 지원(편부모,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 숙제지도의 어려움 등, 양육문제에 대한 상담, 조언, 자원제공), 아동의 열악한 상태(장애, 질병 등)에 대한 지원을 그 주변으로 하고 있는 중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삶, 여성의 삶, 가족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쌓아온 끊임없는 논쟁과 투쟁의 결과이며 구 동독의 보육제도에서 배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시설 설립은 국가(또

는 지방)와 사회단체(특히 종교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사회단체의 활약은 괄목할 만 하다. 종교세와 기부금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부모의 차등보육료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사회(주)나 지역 또는 사회단체)와 부모의 책임부담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편이다. 복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자금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 정도는 다를지라도 공동부담이 하나의 대안적 제도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의 담당 부서의 제도적 강화와 보육료 제도의 개선, 교사교육과정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립시설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국가 및 사회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 (1) 보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보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보육에 대한 개념은 보호, 양육, 보살핌, 인격형성 등과 같이 아동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내포해야 한다.
- (2) 보육실천을 위한 지역별 기본(표준)보육운영비(교사보수, 급식, 교재교구, 시설 등)를 정확히 계산·확립하여, 그 수준을 장기적으로 높여간다. 설립에 대한 비용은 개인(민간시설인 경우), 단체, 관(지역, 국가)의 순서로 비용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려나감으로서, 영리목적과 같은 문제나 비리를 지양하고 보육책임의 사회화(공보육화)에 점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3) 조세제도를 강화하여 부모의 정확한 수입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육료 부담을 실시한다. 부모의 차등보육료의 합이 기본보육운영비보다 부족한 경우는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부담한다.
- (4) 담당부서 또는 설립자, 보육시설 연합회와 같은 단체가 지역별 기본운영비 기준에 따라 보육료를 종합관리 및 재분배하여 보육시설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단, 기본 운영비 이상의 잉여부분은 재분배하여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5) 각 지역의 관할 담당 부서를 세분화하여 기초조사 및 보육발달 연구, 상담, 재정관리, 장학 및 조언, 특수교육, 문제발생에 대한 법정 관리 등에 대한 전문분야로 나누어, 보육내용 뿐 만 아니라 교직원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아동 및 교사의 문제행동 등에 대하여 개소 별(또는 아동 수별) 책임자 비율제를 두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석사 이상의 전문가의 경우 공무원 시험제도를 면제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단, 운영자의 철학과 자율적인 보육운영을 최대한 인정하여 획일적인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질적인 관리에 초점을 둔다. 양적인 관리는 지역별 아동 수와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보육시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균등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육 시설 설치문제를 관리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 베이비씨터 형식을 개선하여 정교사를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교사 파견제는 독일의 "Springer제"처럼 시설의 교사가 병가를 내야 할 때와 보수교육 시에도 파견될 수 있도록 한다.

- (6) 보육교사 교육은 일원화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최소 2년의 학교교육과 1년 정도의 실습을 통해 받은 무료로 받은 정교사 보수의 절반을 받으며 교육현장에서 부족한 교사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을 모색한다.
- (7) 보육교사 교육과정은 실기와 기초과정을 포함한 아동교육 부분, 아동복지부분, 교사수양과정, 가족과의 관계 부분, 보육시설운영 부분 등의 다양한 부분을 통합하여 테마별 수업을 실시하여 보다 실천적 능력을 지닌 교사로 양성한다. 실습에 임하기 전에는 영아, 유아, 학령기 아동보육의 특별 분야를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여 해당 시설에서 실습하고 해당주제에 대한 졸업논문을 작성하도록 하며, 면접을 통한 엄격한 교사의 자질검증을 실시한다. 실습기간 중에는 최소 2회 이상(1주일 정도) 학교교육과 통합하는 학습과정을 가지도록 하여, 이론과 실재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8) 영유아보육법은 모자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장애아 보호법, 의료보험법, 근로법 등의 관련법들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을 "자녀양육지원법"과 같은 근본법으로 삼아 장애아든 정상아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범국가적인 아동정책을 펼쳐나간다. 각 지역에서는 위의 법을 모범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보육법을 만들어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재정적인 문제는 부모, 단체, 지역(관), 중앙에서 적절히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 (9) 기존의 보육위원회의 구성은 설립자, 운영자, 부모, 상담 및 조연 담당자(네 번째 참조), 보육교사, 학자 등의 대표들로 하고, 보육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방안을 구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과제를 지녀야 한다. 매 회의 회의는 수당을 지급하여 참여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 (10) 보육운영 및 보육시설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부모참여를 의무화하여, 부모교육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부모의 공동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 윤선영(1997). 독일의 보육현황.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서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 Born, C.(1989). Hausfrau oder Berufsfrau - eine auch fuer Mutter mit kleinen Kindern inadaequate Perspkive? In: Frauensozialkunde. Mueller &Schmidt-Waldherr(Hg). Bielefeld.
- Haertel, S.(1992). Zur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Erwebsarbeit bei Frauen - Ein Vergleich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n Niederlanden. Diplomarbeit im Studiengang Sozialarbeit, Evangelische Fachhochschule Rheinland-Westfalen-Lippe.
- Muender, J. u. a.(1999). Frankfurter Lehr- und Praxis-Kommentar zum KJHG/SGB VIII. Muenster: Votum.
-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aden-Wuerttemberg(1999). Kindergartengesetz fuer Baden-Wuerttemberg.
-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randenburg(2001). Kitagesetz.
- Senatverwaltung fuer Landes Berlin(2000). Informationsblatt zum Bundeserziehungsgesetz.
- Senatverwaltung fuer Schuele, Jugend und Sport(1998).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uer Berlin.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캠페인

편집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본보는 여성부 후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주최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수원,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본 지에서는 한국 보육교사회의 지부별로 진행된 캠페인 상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

아이 낳기가 무섭습니다.

낳는데도 돈이 들지만 키우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지만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무섭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 사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텐데 아직도 아이 키우는 가정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는 사회, 아이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많이 버는 가정의 아이나 적게 버는 가정의 아이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골목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지만 비용 때문에, 시간 때문에, 시설환경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비용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보육제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이 키우는 책임을 함께 하는 일, 공보육의 시작입니다.

◀ 공보육이란?

아이를 키우는 비용,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비용의 부담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이 가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입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 육아 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 등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제도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곳입니다.

대가족이 해체되면서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나타나고 가정에서만 육아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육아문제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자녀에게 또래와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가정, 그밖에 아이 키우기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가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 왜 아이 키우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나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00년에 7%를 상회하여 우리사회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점점 적어지고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사회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취업율은 20대에 상승하다가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아이 키우는 문제가 가정에서, 여성만의 책임으로 남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문제 해결 없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를 정부, 사회, 가정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차등보육료제도 도입!

한달에 120만 원을 버는 가정이나 300만 원을 버는 가정이나 보육비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은 4인 가족 기준 한달에 105만원의 수입이하인 경우에만 그것도 보육비용의 50%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등보육료제도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이라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등보육료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활성화!!!

아주 어린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도 맡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맞추어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아는 교사가 담당하는 수가 적어야 하고, 야간보육이나 연장보육을 하려면 교사를 총원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시설의 설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영아보육, 장애

아 보육, 야간보육, 휴일 보육, 24시간 보육 등은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공립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6%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관리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수만큼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 민간시설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현재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아동은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에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질 좋은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정부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보육제도가 바로 서야 합니다】

♡♡ 보육이 바로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일

1. 육아문제를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 보강복지부는 보육비용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유치원, 학원 등 유아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바람직한 역할 조정과 협력을 위해 정부안에 책임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합니다.
4. 현재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보육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겁 없는 용감한 행동 - 직장생활과 아이 키우기

유금숙 · 서울, 씹씩이어린이집 자모

단풍이 아름다운 10월이 지나가는 자리, 11월이 코앞에 다가왔다.

가을바람은 지나간 시간들을 되살려내고 지나간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그리움의 계절이라고나 할까.

하루종일 시달리다 돌아오면 딸아이의 숙한 요구들에 응해주어야 하는 나의 신세. 나는 이제 아줌마가 되었고 무수한 관계들에 싸여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딸은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남의 손으로 절반을 키웠다. 작은아이는 아예 언니에게 맡겨져 두 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다.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도 다르지만 절반의 시간을 보내는 놀이방,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과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아이가 놀이방에 다닐 때는 깔끔하고 나름대로의 우아함이 있었고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80명이 넘는 데다 우리 아이는 뚜껑이 달려있는 것만 있으면 뚜껑을 열고 연필로 눈썹을 그리고 사탕도 루

즈모양 별사탕만 샀다. 립스틱을 바르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은 이제 갓 20을 넘은 분이었는데 눈썹은 모 눈화장 처럼 길다랗게 붙이고 정성스레 빠짐 없는 화장을 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또 아이는 집에만 오면 "엄마 디지털 플레이어 줘. 엄마 비디오..." 끝없이 텔레비전을 밝혔다.

유심히 살펴보니 4시만 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엄마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신변보호차원에서만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다.

어느 날은 궁금해서 "여기는 TV를 몇 시부터 보여줘요?" 하고 물었더니 "5시쯤부터요." 했다. 나는 거의 1년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어린이집 안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웬지 들어가는 것을 시설에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각 방마다 안쪽에 텔레비전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아, 여기는 텔레비전을 많이 애용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은 이사를 와서 씹씩이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 사실 우리 집에서는 꽤 먼 거리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 부부에게는

아침저녁으로 2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런데 마음으로 신뢰가 가는 것은 교사와의 친분관계뿐만 아니라 아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썩썩이로 옮긴 이후 아이가 텔레비전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책과 놀이에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다. 내가 하루 다섯 권 이상의 책을 읽어주어야 아이는 잠을 잘 수 있고 아이의 상상범위(?), 상상력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요즘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는 과학, 영어, 미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비를 더 받고 있다. 그 과학의 수준이 나를 너무 실망시켰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놀이였던 것. 아이들 손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딱 짜여진 프로젝트로 다 선생님이 만들어주고 날마다 비닐팩 등의 쓰레기만 쌓이게 했고, 또 영어는 중고생이 하는 'This is my room.' 이런 것을 테이프로 들려주거나 했다.

나를 지금의 동네로 이사오게 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그 어린

이집이 맘에 안 들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이 시대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누구 말처럼 겁 없는, 용감한 행동에 속할 것이다. 실제로 겪어보니 많이 힘들다. 썩썩이를 믿고 키우는 수밖에.

내년 봄이면 언니가 키워주고 있는 둘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날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키워야 한다. 이제 의지 할 데라고는 썩썩이 밖에 없다.

나는 가끔씩 들려오는 '모성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들으면서 언제쯤 우리나라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이 모든 국가정책의 밑거름이 되는지, 겁 없는 행위가 아닌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슈퍼우먼이 아닌 그냥 여성이어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인천에서는요.....



인천지역에서는 10월 14일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그 날이 저희 지부가 인천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주관하는 '인천인권영화제'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근처에 관을 벌렸습니다.

저희지역은 요즘 보육조례를 만드는 활동도 하고 있어 보육조례 서명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얼굴에 페이스페인팅도 하고 풍물패 메나리가 나와 풍물 공연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돋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천지역에 보육조례도 제대로 만들어 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기지부 캠페인을 마치고

강영신 · 본회 경기지부장

경기지부는 보육교사회 5개 지부 중 가장 늦게 캠페인을 마쳤다. 시기상으로는 여유도 있었겠지만 회원들이 경기도 넓은 지역에 있어 의견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원여성회와 함께 동수원 뉴코아 앞에서 2시에 모여 5시까지 캠페인을 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경기지부 단독사업이라 다들 조금씩의 부담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부터 준비물을 구입하고 필요한 글귀 뽑아내고 사탕 붙이고 경기지부 전화번호를 인쇄물에 붙이고 현수막 글씨 붙이고 등의 작업을 같이 하면서 지역에 홍보를 하려고 신문사에 전화를 하니 기사를 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한다.

캠페인 장소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니지는 않았다. 시급하게 생각하는 보육의 문제를 글귀와 그림과 같이 전시하고 인쇄물에 사탕을 붙여 나누어주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몇몇은 단체 조끼를 입었고 등에 "우리가 낸 세금 아이들에

게"라는 글귀를 스프레이로 뿌려 붙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도 아니면서 여자들이 모여 무엇을 하나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인쇄물은 생각보다 빨리 배포가 끝났다. 인쇄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디오로 촬영하면서 인터뷰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선뜻 대답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시간이 없다고 가신 분도 계셨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들 맡길 때 어떠한 것을 보고 맡길 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동과 교사와의 비율을 먼저 생각해 본다고 했고 한 부부는 보육시설이 지향하는 교육이 무엇인가와 집과의 거리를 본다고 했다.

모든 행사는 끝나고 평가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경기지부도 좀 더 많은 회의를 걸쳤다면 더 좋은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많이 알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내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육의 형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원들이 인쇄물을 들고 나누어주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

다른 일정들이 있어 뒷풀이를 길게 못하

고 밥만 먹고 헤어져 아쉬웠지만 모처럼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어 좋았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합시다!



부산지역 캠페인을 마치고

안 미 경 · 부산, 해맑은세상어린이집



부산보육교사회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하게 된 캠페인인 만큼 준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엄마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를 모색하기부터 시작해 우리의 내용을 좀더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늦게까지 보육을 해야 되는 회원들이 많아서 전원 참석을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각 지회별 배당 수만큼 모두 동참을 하였는데 거의 14명 정도의 회원이 모였습니다. 집회처럼 역할을 나눠 선전전도 하고 율동도 하고 자료도 나눠주었습니다.

자랑터 자모 중 한 분이 3분 스피치를 하시면서 현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사실감 있게 호소하기도 하였고 주강어린이집 큰 반 아이들이 와서 배운 율동으로 주위를 집중시켜 주기도 하였지요. 아이들이 나눠 준 선전용 풍선은 금세 바닥나고 홈페이지로 장을 보러 가시는 주부님들도 관심 있게 선전물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질문을 던

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민감한 사안들이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았는데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13명의 회원들은 여름에 새로 맞춘 끈색 부보회 반팔옷을 모두 갖춰 입고서 능숙치 못한 언변으로 마이크를 잡고 선전을 하였는데 쑥스러워 하면서도 선전내용을 모두 당당하게 외쳤는데 모두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번의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내용을 알릴 수는 없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 자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광주지역 캠페인을 마치고

박 미 영 · 광주, 전남, 조직부장

'보육비용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을 늘리고 좋은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캠페인을 광주, 전남 보육교사회에서는 10월 14일 광주 상무공원에세 진행했습니다.

사전 준비로 홍보물과 피켓, 풍선, 스티커 붙이기 등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며, 또한 우리 지역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나고 여성과 가정은 보다 건강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식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날, 캠페인이 끝나고 광주, 전남 보육

교사회 야유회도 함께 가졌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비록 작은 회원이 모였지만 고기며, 술이며 준비해 함께 먹고, 놀이활동도 진행하면서 회원들간의 친화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목포지역의 캠페인입니다.

김금자 · 광주전남, 새꿈담는 우리어린이집

지난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목포 차 없는 거리(역전과 가까운 데에 있어요)에서 진행되었구요. 목포여성회(준) 회원들과 보육교사회 회원들인 새꿈담는 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성상담센터 등 다른 단체와 일정이 맞지 않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캠페인에 대해 함께 공유하였고 무엇보다도 목포여성회(준) 활동을 저희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는 미혼이 많아 그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보육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이엄마보다 오히려 미혼인 회원들이 더 열성으로 시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구요.

캠페인의 호응 정도는 글썽요....

좋다고 옴은 말이라며 책자를 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시큰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지역에서의 보육문제에 대한 논의와 인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운동이 저희 목포 지역에서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운동으로 제기하는 단계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렵니다.



요리를 통한 통합 교육 활동

◆ 요리활동의 교육적 의의

- 1) 음식재료를 탐색하면서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재료를 접해본다.
- 2) 음식을 만들면서 조리과정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배운다.
- 3) 썰기, 깎기, 뒤집기, 반죽하기, 찌기 등의 다양한 조리과정 속에서 신체발달을 돕는다.
- 4) 다양한 도구(칼, 채칼, 뒤집게, 국자, 밀대 등)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5) 직접 만들어서 먹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성취감을 느낀다.
- 6) 요리 활동 속에서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기(장보기, 씻기, 다듬기, 썰기, 배식, 설거지, 뒷정리)
- 7) 조리과정을 미리 예측해 봄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키우고, 조별 활동으로 사회성을 키움
- 8) 뒷정리, 설거지를 하면서 일의 마무리를 배울 수 있게 한다.

◆ 요리활동의 일정

날 짜	요 리	요리의 특징
3 9	오리엔테이션, 우리 무엇을 할까?, 조리가구 알아보기	
16	감자수제비	말가루 반죽
23	아채샌드위치	아채 버무리기, 식빵 위에 샌드위치 만들기
30	김밥	김 위에 재료 얹어 말아보기
4 6	팜 빵	식사에질 친구에게 대접하기
13	시절음식 화전	불꽃 관찰, 화전 꾸미기
20	떡산적	재료를 꼬치에 끼워보기
27	샌프	
5 4	시절음식 화채	다양한 과일 탐색
11	내방식대로의 만두	
18	오징어부침	오징어 탐색
25	떡볶이	
6 1	시절음식 콩국수	콩 탐색, 콩의 변화관찰
8	우리밀 빵	밀가루 탐색, 반죽해보기
15	아채 맛보기	아채 탐색
22	시장놀이	
29	과일 셰이크	과일 탐색, 과일의 변화과정관찰

✦ 요리활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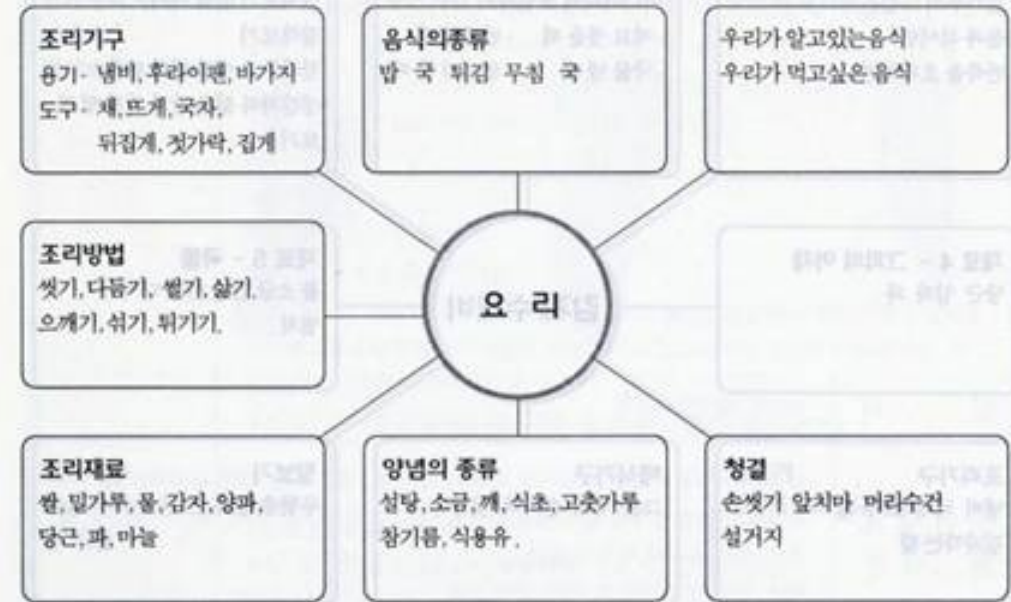
총 3시간

- 예측하기, 조리기 30분
- 장보기, 조리준비(조리도구양념준비), 씻고다듬기 30분
- 조리(썰기, 끓이기, 반죽하기...)배식 1시간
- 시식, 정리 설거지 30분
- 사후작업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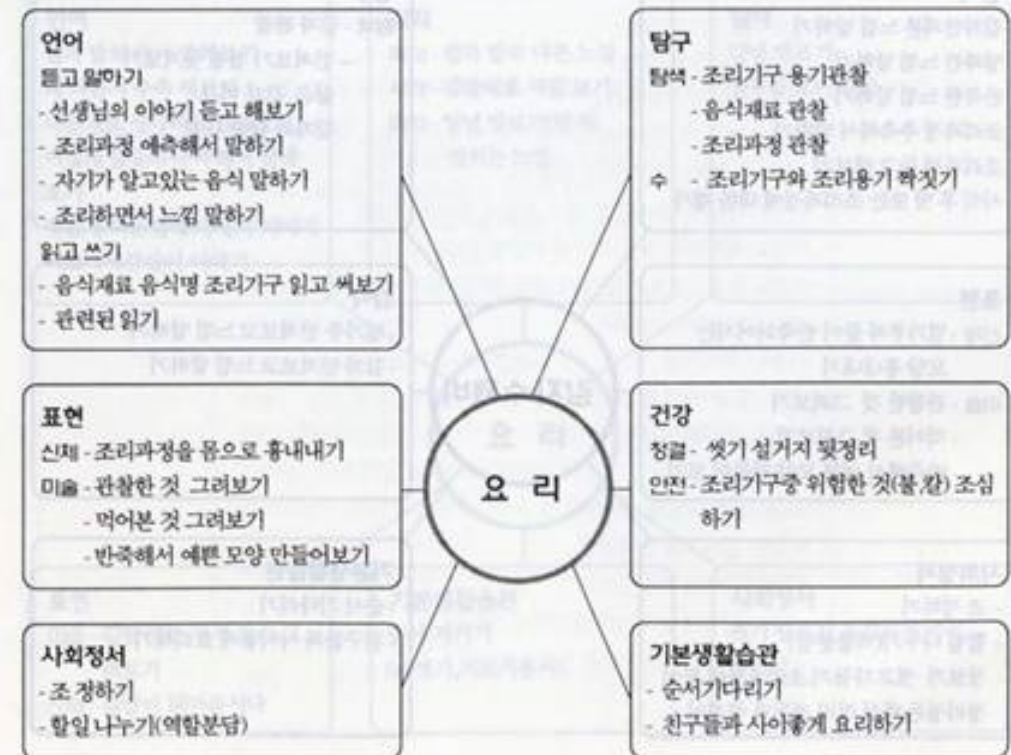
✦ 요리활동일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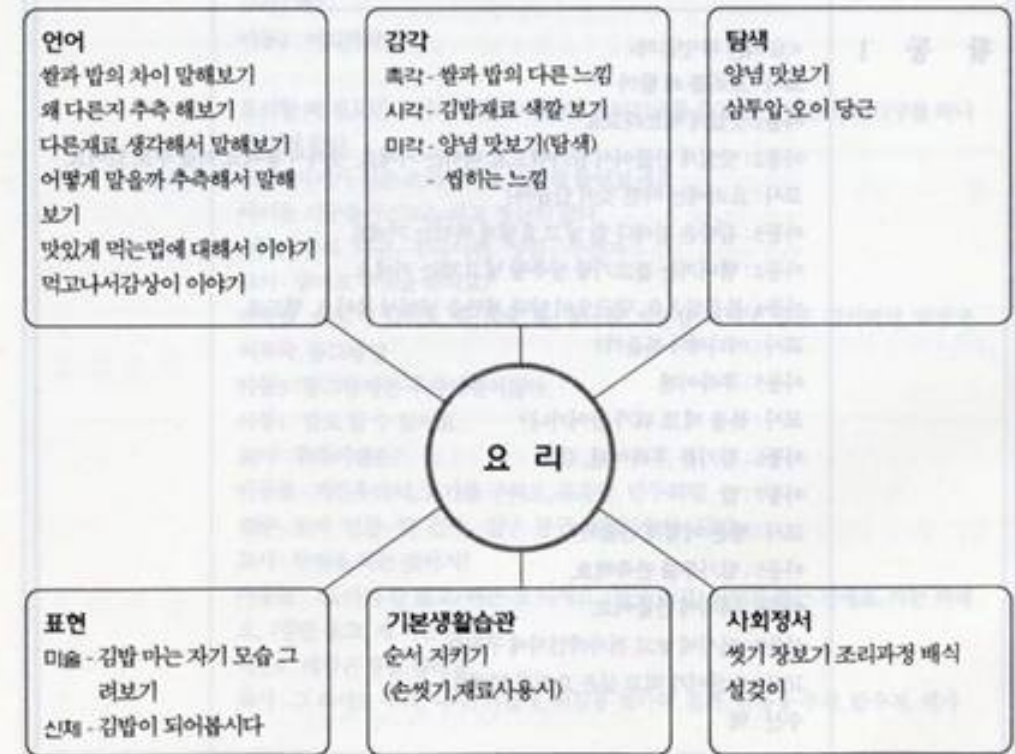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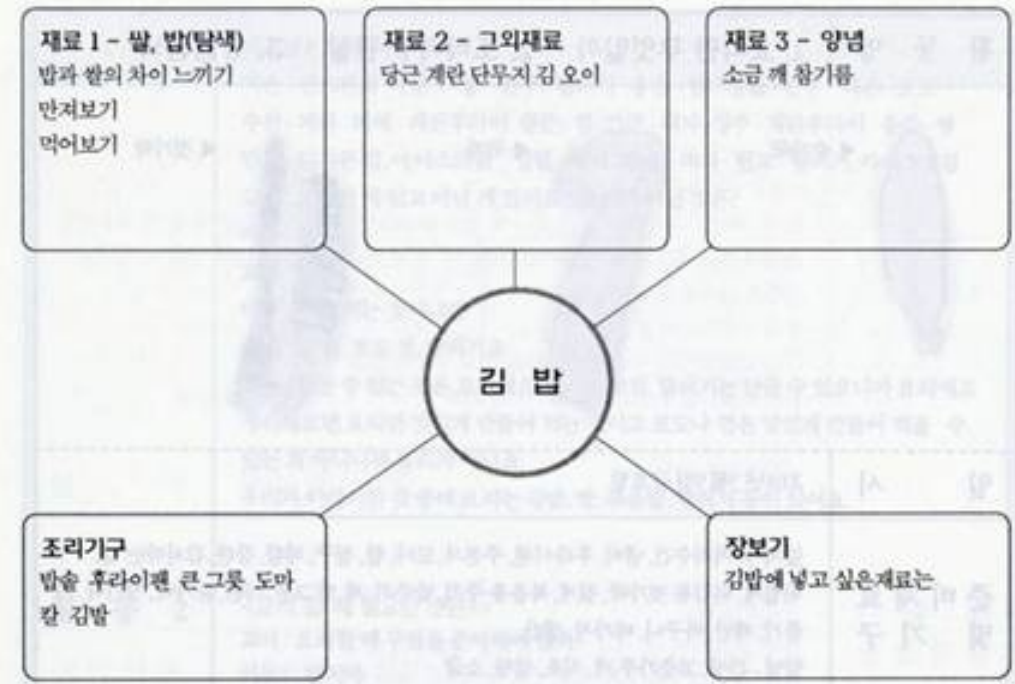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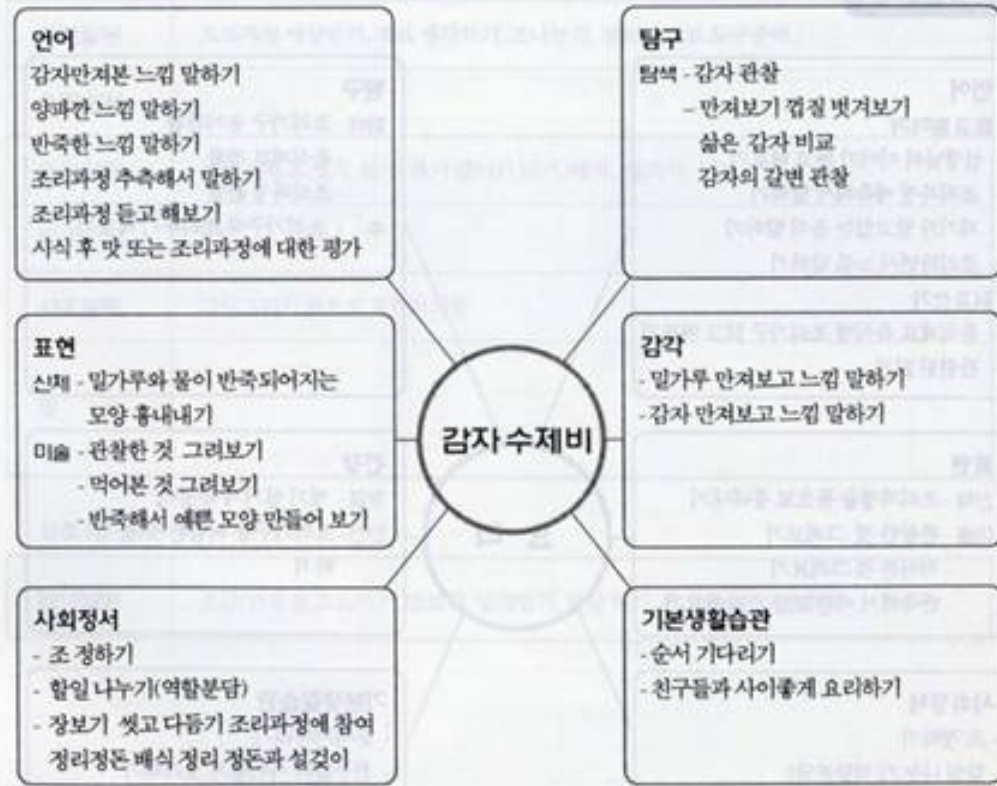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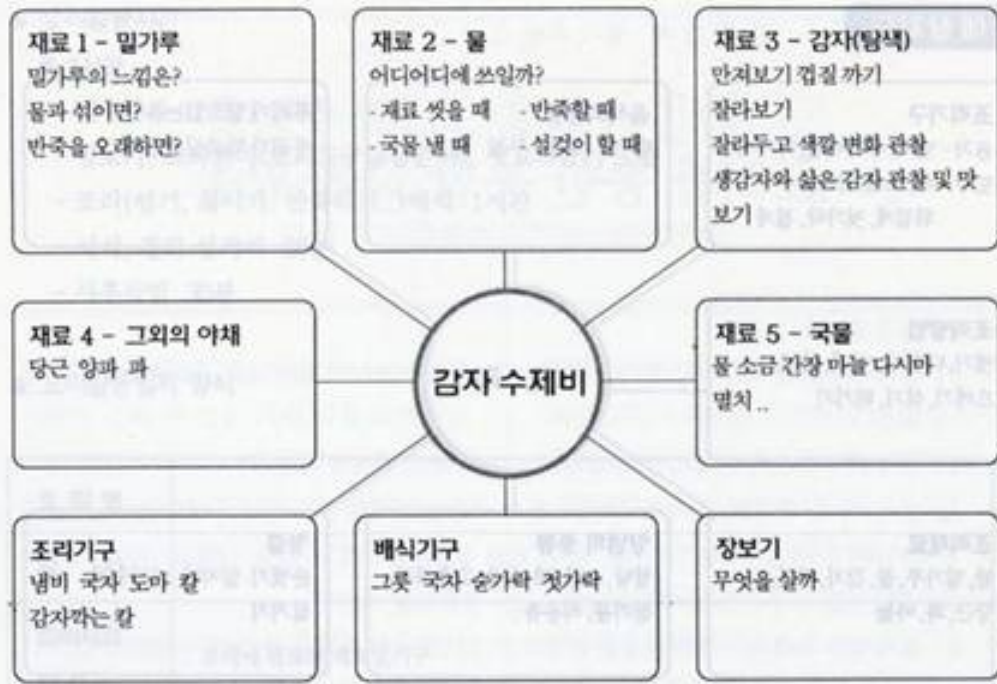
요 리 명	
일 시	
준비재료 및 기구	요리에 필요한 재료및기구
참석아동	
사전활동	요리과정 예상하기, 재료 생각하기, 조나누기, 장보기,재료 도구준비,
요리순서	
요리과정	재료 다듬고 씻기,썰기,볶기 끓이기 담기, 배식, 설거지, 먹기
주 의 점	
사후활동	그림그리기,몸으로 표현하기등
평 가	
탐색활동	오감(만져 보고 느끼기, 맛보기, 냄새맡기, 관찰 하기, 듣기)을 통한 탐색

예 상 지도



통합적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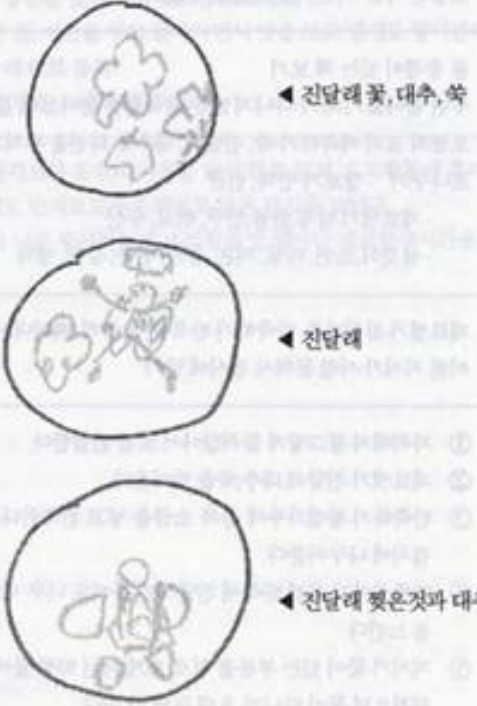


활동명	1. 요리란 무엇일까 2. 조리기구 관찰 3. 양념탐색
	  
일시	2001년 3월 9일 금요일
준비재료 및 도구	알치마, 머리수건, 냄비, 후라이팬, 주전자, 도마, 칼, 절구, 채칼, 강판, 감자깍는 칼, 뒤집게, 뒤집용 젓가락, 집게, 볶음용 주걱, 밥주걱, 체, 밥그릇, 식판, 숟가락, 젓가락, 거품기, 채반, 바구니, 바가지, 쟁반, 양념-간장, 고춧가루, 식초, 설탕, 소금
참석 아동	18명 - 김수산, 백동규, 정민혁, 김미형, 백홍주, 유한봉, 최지은, 이선주, 조용문, 이강철, 락다운, 이원준, 김미혜, 김민균, 박성주, 최성일, 정현교, 박소연.
활동 1	<요리란 무엇일까> 교사: 요리할 때 할까 아동1: 맛있게 먹으라고요 아동2: 맛있게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예요. 젓아서 통째로 먹을 수도 있어요. 교사: 요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3: 김밥은 김에다 밥 넣고 요렇게 싸먹는 거예요 아동2: 햄버거는 불고기랑 상추랑 넣고 먹는 거예요 아동4: 볶음밥은요, 당근오이 양파 계란을 넣어서 볶아요. 햄도요 교사: 어디에다 볶을까? 아동5: 후라이팬 교사: 볶을 때 뭐가 들어가나? 아동6: 참기름, 후라이팬, 김치 아동7: 밥 교사: 빵은 어떻게 만들까? 아동5: 밀가루를 반죽해요 아동8: 냄비에 만들어요 아동9: 접시에 놓고 전자레인지에 구워요 교사: 수산이가 먹고 싶은 요리가 뭐예요? 수산: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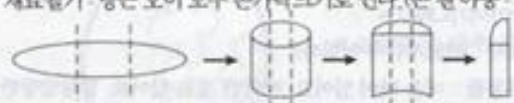
요리과정	먹고싶은 음식 이름 대기 지은-샌드위치 미형-빵 선주-햄버거 용문-젓 강철-만두 다은-포도 수산-계란 미혜-계란후라이 원준-젓 민균-피자 성주-계란후라이 홍주-빵 민혁-다지몬 젓, 아이스크림 성일-케익 한봉-피자 현교-햄버거, 아이스크림 교사: 요리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요리가 아닌 것은? 아동: 젓 교사: 왜? 아동: 사서 먹는 것이니까 아이스크림, 포도 젓, 햄버거요 교사: 만들 수 있는 것은 요리예요. 아이스크림, 햄버거는 만들 수 있으니까 요리예요. 정리해보면 요리란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것이고 포도나 젓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요리는 김밥, 빵, 볶음밥, 햄버거 등이 있어요.
활동 2	<요리할 때 필요한 것은?> 교사: 요리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아동1: 알치마 교사: 왜? 아동1: 옷에 묻지 말라고 아동2: 머리수건 교사: 왜? 아동2: 머리카락. 요리할 때 필요한 조리기구를 제시한다. 조리기구를 주고 갖고 싶은 조리기구를 하나씩 집게 한다. 교사: 자기가 집은 조리기구를 하나씩 들어보세요. 아이들 기구를 두드리느라고 정신이 없다. 지은-냄비 다은-후라이팬 성일-주전자 교사: 냄비로 무엇을 하지요? 아동들: 끓일 수 있어요 죽, 국물, 물, 콩나물, 계란찜, 미역국, 파콘, 김치찌개, 완장국, 어묵국, 동그랑땡 아동3: 동그랑땡은 후라이팬이잖아. 아동1: 밥도 할 수 있어요 교사: 후라이팬은? 아동들: 계란후라이, 고기를 구워요, 볶음밥, 만두뒤집 원준-도마 민균-칼 선주-절구 동규-채칼 수산-강판 교사: 무엇을 하는 것이지? 아동들: (도마와 칼 들고) 썰는 거예요, (절구 들고) 이렇게 빻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강판 들고) 채 썰는 거예요 아동4: 채칼은 무를 잘라요 교사: 그 외에도 주걱, 국자, 뒤집게, 뒤집용 젓가락, 집게, 볶음용 주걱, 밥주걱, 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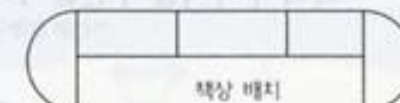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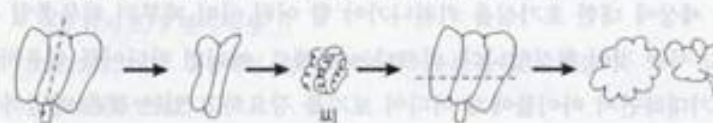
	있구요, 먹을 때 쓰이는 기구는 밥그릇, 식판, 숟가락이 있어요. 여기 친구들이 안 가지고 간 것을 살펴볼까? 거품기, 채반, 바구니, 바가지, 쟁반 제시 교사: (거품기 들고) 이것을 어디에 쓸까? 아동5: 계란 섞을 때. 교사: 채반은 기름요리 놓을 때나 빵 놓을 때 쓰고, 바구니는 물기를 뽐 때 쓰거나 국수 삶아서 건질 때도 써요. 바가지는 물 뜰 때, 쌀 풀 때, 쌀 씻을 때, 아재 씻을 때 써요. 쟁반은 음식을 옮길 때 써요. 우리 주전자노래 불러볼까? 나는 착고 통통한 주전자 손잡이도 있고 주둥이 있고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예쁘게 따라주세요 <조리기구 딱지 만들기> 후라이팬 - 뒤집게 냄비 - 국자 절구 - 절구공이 도마 - 칼
활동 3 탐색 활동	<양념 탐색> 간장, 고춧가루, 깨, 식초, 설탕, 소금을 필름통에 준비 교사: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있어요. 맛에는 어떤 맛이 있을까? 짭짭, 신맛, 매운맛, 고소한 맛, 쓴맛, 단맛이 있어요. 단맛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들: 고구마, 껌, 설탕, 포도, 맛탕, 사탕 교사: 여기 양념을 맛보고 냄새도 맡아보세요. 아동들 20분 도 시간을 두고 돌아가면서 맛을 보고 냄새도 맡아본다. 교사: 맛을 왜 혀로 볼까? 그것은 혀가 맛을 느끼기 때문이지.
평가	아동들이 생각보다 음식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고, 요리활동에 흥미가 많았다. 조리기구에도 만져보고 두드리고 많은 관심을 보인다. 양념 탐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리활동 할 때마다 재료탐색시간을 가져야겠다

요 리 명	진달래화전
	   ▲ 진달래 ▲ 쑥 ▲ 대추
일 시	2001년 4월 13일(금)
활동 목표	주변의 봄꽃을 관찰한다 봄의 세시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시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준비 재료 및 기구	재료: 대추, 쑥, 진달래, 찹쌀가루, 식용유, 건포도, 인절미 기구: 휴대용 가스렌지, 후라이팬, 도마, 채, 개인접시, 바가지.
참석 아동	18명 낮잠전 아동: 다은, 민아, 호영, 강철.
사전 활동	봄 풍경이 있는 책 보기 주변 돌아보기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돌아보며 봄꽃 관찰하고, 쑥도 따왔다. 오늘의 요리 예측하기 쑥, 진달래, 대추로 화전을 부치기로 했다. 조나누기 - 장보기 민혁, 민균 - 재료씻기 남경, 한봄, 선주, 현교, 수산 - 설거지 소연, 미형, 지은, 동규, 원준, 강철, 영덕
요리 순서	재료씻기-찹쌀가루 반죽하기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어 진달래, 쑥, 대추로 꾸미기 후라이팬 지지기 시림 묻혀서 접시에 담기
요리 과정	① 자리배치-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꽃을 관찰한다. ② 재료씻기-진달래, 대추, 쑥을 씻어온다. ③ 반죽하기-찹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고 반죽한다. 찹쌀 반죽을 만들 양만큼 개인 접시에 나누어준다. ④ 반죽꾸미기-찹쌀 반죽에 진달래만 붙여도 너무 예쁘다. 예쁘니까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낀다. ⑤ 지지기-꽃이 있는 부분을 위로 오게 해서 약한 불에 거의 다 익을 때까지 둔다. 뒤집으면 꽃이 타니까 오래 두면 안 된다.

	⑥ 시럽에 무치기 전에 안팎에서 시럽에 간을 해서 묻힌다. ⑦ 접시에 나누어 담아서 시식	
주 의 점	생 찰갠가루인 경우는 미리 반죽해서 불러둔다. 금새 반죽 할 경우는 많이 질게 해준다. 반죽은 약간 찰갠하게 한다.	
사 후 활 동	미술 준비물-사용지, 크레파스 화전 그려보기-동그라미 안에 다양한 꽃을 보고 그려낸다.	
평 가	찰갠가루가 되서 뒤집 때 애를 먹었고, 간을 안 해서 시럽을 묻히지 않았으면 싱거울 뻔 했다. 사전작업으로 봄꽃을 관찰하러 나갔다는 것이 참 좋았다. 아이들이 봄꽃을 참 좋아한다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쉽다. - 다음부터는 사진기 구비 아이들이 화전 꾸민 것이 너무 예뻐다. 다른 활동하고 달라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맛에도 신경 써야겠다.	
탐 색 활 동	꽃관찰 주변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봄꽃을 관찰한다 찰갠가루 탐색 가루를 만져보고, 먹어보고, 냄새도 맡아본다.	
		

요 리 명	떡산적
	
일 시	2001년 4월 20일 (금)
활 동 목 표	썰고 끼우기 등의 요리활동에 직접 참여해본다. 조리과정의 예상하면서 논리적 사고를 가진다.
준 비 재 료 및 기 구	포치재료- 맛살, 햄, 오이, 당근, 피망, 고추장, 케찹, 기구- 포치, 후라이팬, 개인 접시, 소쿠리
참 석 아 동	이선주, 박소연, 최지은, 이남경, 조용문, 김영덕, 이원준, 김미형, 김민균, 정현교, 정민혁, 유한봄, 김미혜, 자는아동- 백동규, 안민아, 이강철, 곽다운.
사 전 활 동	<아이기너가> 교사: 떡조치란 무엇일까? 아동들: 대운 맛이 있어요, 딱딱한 것도 있어요, 말랑말랑한 것도 있어요, 이쭉시게에 떡을 끼워요, 케찹을 발라요, 고추장을 발라요, 고추장하고 케찹하고 섞어요, 야채를 썰어요. 교사: 무슨 재료가 필요할까? 아동들: 피망, 이쭉시게, 맛살, 떡, 햄, 오이, 당근이요, 고추장하고 케찹하고 섞어요. 교사: 도구는? 아동들: 이쭉시게, 칼, 도마, 접시, 숟가락이요 교사: 고소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 깨소금이요 교사: 달게 하려면? 아동: 설탕이요 교사: 어떻게 만들까? 아동: 이쭉시게에 떡을 끼우고, 맛살을 끼우고, 오이를 끼워요, 고추장하고 케찹을 발라줘요.

	<조 나누기> 장보기: 미혜(피망), 한봄(맛살), 원준(햄), 민혁(오이), 용문(당근), 현교(이쑤시개) 재료씻기: 소연, 지은, 남경, 영덕, 미형, 설거지: 민균, 선주, 낮잠 자는 아동
요리 순서	재료준비 - 자리배치 - 재료씻기 - 재료를 썰어서 꼬치에 끼우고, 기름에 튀겨서 소스를 묻힌다 - 재료를 예쁘게 접시에 담는다. - 시식 - 설거지 및 정리 정돈
요리 과정	① 요리준비 - 장보기조는 나가서 장을 본다. 모두 자기가 맡은 재료를 제대로 고른다. - 장보러 가는 아동을 제외하고는 요리도구를 챙겨온다 - 알차마를 한다. ② 자리를 배치한다. (책상모양) ③ 재료 탐색 - 요리재료를 살펴보고 어떻게 썰지에 대해서 이야기 교사: 어떻게 썰까? 아동: 가다얏게 썰어요 교사: 그래 손가락만하게 썰자. ④ 재료씻기 및 껍질벗기기 - 오이, 당근, 피망은 씻어서 소쿠리에 물기를 뺀다. 영덕, 홍주는 껍질을 벗긴다. 햄은 미형이가 씻어온다. 소쿠리와 큰그릇을 주었는데, 소쿠리를 큰그릇에 받히지 않고 위에 덮어가치고 온다 ⑤ 재료썰기 - 당근 오이 모두 손가락크기로 썰다. (손 댄 아동 - 박호영)  ⑥ 끼우기 - (끼우다가 손 댄 아동 - 김미형, 정민혁) ⑦ 지지기 ⑧ 소스바르기 ⑨ 시식 - 양이 많아서 넉넉하게 먹었다. 피망을 먹지 않으려고 함 ⑩ 설거지
주 의 점	끼울 때 이쑤시개에 찢릴 수 있고, 또 칼이 안전 칼이어도 베일 염려가 있으니 주의 물 주어야 한다 불을 사용하므로 지지는 과정에는 자리를 뜨면 안 된다.
사 후 활 동	

평 가	-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음 - 단순화 할 필요 (떡을 안 하든지 야채를 넣고 튀기지 말든지... 야채 때문에 기름이 튀다.) - 칼과 Q-촉한 것에 대한 주의 필요 (부드러운 재료를 하도록 고민) - 아이들이 이야기 한 재료를 다 넣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 아이들이 이야기 여과 - 낮잠 자는 아동에 대한 고민 - 오늘 자리배치가 나았다.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보자. 돗자리  - 교사가 바쁘면 아동이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다. -> 작업 단순화 - 오늘 요리는 떡꼬치가 아니고 떡 산적 이었다
탐 색 활 동	<피망 관찰> 반을 잘라서 씨를 빼니 아이들이 이것을 왜 빼느냐고 묻는다.  교사: 피망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동들: 만져보니 부드러워요, 색깔은 푸른색이에요, 연두색이에요 씨는 허안색 이예요.
	

TV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 씹씩이아이들이 만들어가는 TV 하루 안보기 운동! ·

씹씩이에서는 지난 2001년 8월10일부터 9월4일까지 TV 하루 안 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왜 TV하루 안 보기 운동일까요?

집집마다 TV, 비디오와 컴퓨터, 게임기까지 구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창 자유롭게 뛰어 놀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가야 할 어린 아이 때부터 하루종일 사각의 화면을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미디어를 이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을까 기대하면서 아이들에게 미디어 보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공통된 반성에서 TV안 보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TV 시청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 중 하나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TV는 방해꾼에 지나지 않고, 폭력, 선정적인 장면은 정서발달에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은 TV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학교보다도 부모보다도 아이들은 TV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TV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것이고, 학교나 학원에 갔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TV를 켜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도 습관적으로 TV를 시청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TV 시청시간을 통제하려는 부모와 어떻게 해서든지 TV를 보려는 아이들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종종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TV 시청시간과 습관적인 시청태도를 고칠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많은 오락물과 다양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지지만 그것을 잘 판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몫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씹씩이 어린이집 친구들은 TV하루 안 보기 운동을 진행하는 일주일동안 TV가 없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천함으로써 TV를 안보는 동안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TV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TV 없는 하루 준비 계획

1 day (TV가 없다면)

- 미술활동 : 생각해 그리기 "TV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 이야기 나누기 : "TV안 보기 운동을 하는 이유"
- 계획하기 : "TV가 없다면 무얼 하고 놀까?"
TV가 없는 하루동안의 계획표 만들기

2 day (TV안 보기 운동을 잘 알려려면)

- 이야기 나누기 : TV안 보기 운동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 모으기 (포스터/편지 쓰기/뱃지/등등...)
- 미술활동 : 포스터그리기 - 공동작업 : 손바닥 찌기를 이용한 플랭카드 만들기
- 언어활동 : 홍보깃발 만들기

3 day (TV안 보기를 약속해요)

- 이야기 나누기 : TV안보기로 한 마음을 약속해봐요 (약속내용정하기/서약서 만들기)
- TV없는 하루동안 TV를 어떻게 할까
- 미술활동 : 아재도장파기/서약서 쓰기

4 day (TV없는 날)

- TV없는 날 시작하는 식 : 선서/서약서에 도장찍기/깃발 들고 입장하기/TV와 이별하기
- 첫 질 계획한 활동을 진행

5 day (TV안보기 운동기간을 마치는 날)

- 상장나누기, 축하 선물 (사랑목걸이) 나누기
- TV없는 하루 보낸 이야기
- TV안보기 운동기간의 느낌 말하기
- 앞으로의 시청계획표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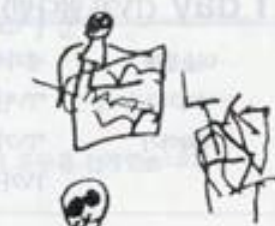


만약 TV가

TV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노슬미 (8세)
밖에 나가서 '숨바꼭질'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놀 수 있어요.



노슬찬 (6세)
잠 잘지게 되요. 잠 잘지면 망태할아버지가 착한애라고 텔레비전 선물로 줘요. 친구들과 같이 텔레비전을 볼 거예요.



김여주 (6세)
다시 만들어요.
(만들 수 없으면 가게 가서 사요!)



전수정 (6세)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 텔레비전을 만들어 줘요. 요정 할머니가 안 맡겨주면 엄마,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볼 거예요.



김주성 (8세)
주차장에서 '꼭꼭 숨어라' 놀이하면서 동생들과 놀 수 있어요.

없다면...



박달재 (6세)
심심해서 잠만 자게 되요.



김성운 (6세)
할아버지, 할머니네 놀러가요.
만 애들도 다른데 막 놀러갈 수 있어요.



이종연 (6세)
심심해서 마당에서 놀아요. 옷입고 나와서 놀고 풀도 뜯어 손으로 문쳐 눈놀이도 할 수 있어요!



이예지 (8세)
풀 뜯어서 엄마놀이도 하고요. 섹섹이에서 친구들과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만들어

• TV없는 하루 계획하기 •

- 아이들이 직접 TV없이 뽀빠이에서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하여 놀이표로 만들었어요-

TV없는 하루!

• 뽀빠이에 와요!

• 반죽 놀이

• 산책
• 동생들과 나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TV안보기 약속식)

• 밥 먹고 양치하기

• 반죽 놀이 볼러 두가지 놀이

• 요가

• 나 장 / 운동하기

• 간식

• 쉼 시간에 친구들 생일 축하하기

• 특별히 하고 싶은 놀이하기

• 얼마 아바랑 질러가요.

• 서약서 •

- TV없는 하루를 스스로 약속하고 잊지 않도록 약속 종이에 기록하여 도장까지 찍어요-



가는 TV없는 하루

• TV 안보기 홍보 •

- 아이들이 직접 TV 안 보기 활동을 알릴 방법을 생각하여 포스터와 플랜카드를 제작했어요! -

TV 하루안 보기



서약서
이런
행동
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2011년 9월 11일 토요일
TV안보기 약속식
이벤트



• 앞으로의 TV 시청 계획 •

TV보제회



집에서는
TV안보고
아빠
하고
놀고
싶어

뽀빠이에서 30분만 보게



천미애 선생님과 만남

지탁연이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이곳 광주에서 언제나 동기와 후배들 곁에 따뜻하게 지켜서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로 천미애 선생님 이신데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언제나 밝은 미소를 간직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오랜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낳게 되어 더욱 즐거운 한해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위제 아이를 낳고 나더니 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 젊음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알콩달콩 이야기 속으로 떠나봅시다.



1. 지금의 보육교사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되었나요?

1989년에 월드비전 무진어린이집에 근무할 때입니다. 당시에 무진어린이집, 계림아가방, 도담도담아기둥지, 우리동네아기둥지 등 네 시설의 뜻 있는 교사들이 모여서 광주지역의 보육문제를 고민하면서 아동보육의 발전적인 방안 등을 만들고자 '광주지역탁아소연합회(광탁연)'를 결성하여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고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무등의 아이들'이라는 소책자도 제작하였답니다.

2. 지탁연 초기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보육교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우선은 우리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보육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좌절도 하면서 힘겨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힘을 얻고 새로운 다짐을 하였답니다. 다음은 이 땅의 진정한 복지를 이루기 위하여 같이 힘쓰는 남편의 지지와 격려 때문입니다. 남편도 사회사업가로 아동중심 사회복지기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지요.

3. 10년뒤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아마도 아이들과 같이 뛰어 놀 것 같은데요. 일명 '아동복지관'을 설립하여 남편과 같이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늦둥이인 우리아들 의연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의 학부모가 되어있을 거예요.

4. 그동안 일 해오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

보육교사회의 전신인 지탁연 소속 '광탁연'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아동보육의 양적 확대를 이루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다는 뿌듯한 마음이 앞섭니다. 물론, 보육교사회의 활동으로 절적인 성장도 이루고 있어 우리의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년이 지난 요즘에 공공장소에서 제 얼굴을 기억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천미애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제자들을 만날 때가 인상이 깊으면서 보람을 느낀답니다.

5.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가을도 되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그 분에게 필막한 편지를...

박말신 선생님입니다. 동갑이면서 보육교사활동을 하는데 변함없이 지켜 봐주면서 힘이 되어준 친구랍니다.

말산아, 처음과 나중이 차이가 없는 진실한 친구, 깊고 넓은 마음,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당당한 모습 속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 말산이를 알게되어 행복하고, 좋은 만남 끝까지 간직하자.

6. 지금 일하고 있는 시설이 영아전담시설로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길로 아는데, 시설 소개를 좀 해 주세요.

3세 이하의 영아들이 용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천사들의 집입니다. 넓고 쾌적한 시설환경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아동보육의 전문가들인 연령층이 다양한 8명의 미녀교사들이 가정 같은 보육을 만들어 나가고 있답니다.

7. 영아를 보면서 가장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저는 주로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영아들과 함께 하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기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다면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아프거나, 보채고 울 때, 아이가 되어 재롱떨고, 안아주는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곧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8. 축하! 축하! 어렵게 어렵게 귀염둥이 의연이를 낳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7년만에 얻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소감은 한마디로 감사할 뿐이지요. 그리고 의연이를 키우면서 결혼 후에 정채된 가족주기의 발달이 새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 살아있다는 느낌,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 등입니다. 재미있는 일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나가는 모

습 하나 하나가 재미있고 신기해요.

9. 20대 초반의 교사들보다 더 상냥한 젊음과 활력을 가지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우선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이 지낸다는 것이예요. 눈높이를 같이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생각하구, 환한 표정으로 지내는 것 등등, 그러다 보면 몸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힘들어도 무엇인가 매일매일 창조해나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같아요.

10. 이 땅의 보육교사들에게 한 마디?

초심이라는 말 있죠, 늘 처음처럼요. 하루종일 아이들과 지내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교사들과 종종 의견충돌하고, 시설장과의 갈등 등 주변환경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고, 낙망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육교사의 길을 들어설 때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소명을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아닐 거예요.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 아니 전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동들의 권리를 찾는데 힘쓰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해요.

11.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두 달 동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행하고 싶은데, 의연이가 걸려요. 오호 통제라. 우리 나라의 보육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 여행은 어렵지는 않을텐데. 보육교사인 저한테도 당장 걸리는 아동 보육문제의 한 단면이죠. 소박하고 현실적인 바람은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행정업무도 보고 있는데요, 엑셀공부를 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했으면 좋겠네요.



어린이집의 건강관리 사례발표

심현정 · 서울, 지암어린이집

I. 목적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건강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원간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건강관리 방식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내용

1) 방법

구분	방 법	내 용	비 고
의 사	기본진료기록부	의사선생님이 진료 후 작성하여 건강기록부 첫장에 부착한다.(연 1회 작성)	별첨(2)
	건강기록부	교사가 보관하다가 아동이 다른 원으로 이동될 때 기본진료 기록부와 함께 우송한다	별첨(3)
	식단점검	월1회 작성되는 식단표를 전문가에게 점검의뢰하여 평가받는다.	
학부모	개인 예방 접종 및 검사	예방 접종한 날짜를 기록하여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별첨(4)
교 사	건강관리 연간 계획표	교사회의를 통해 전체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별첨(1-1)
	건강일지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때의 증상과 처치 내용을 꾸준히 기록하여 건강기록부 뒤에 부착한다.	별첨(5)
	월별 예방 접종 계획표	아동의 예방 접종 시기와 접종 명을 반별로 한 장에 기록한다.	별첨(6)
	발육도표	신체 측정된 결과를 정기적으로 표시해 성장발육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월령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 -영아: 1년에 4회 체크 -유아: 1년에 2회 체크	
	건강관리 일지	건강관리 담당교사가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한다.	

2) 행사

행사명	내 용	일 시	주 관	비 고
동 국	예방 주사는 무섭지 않아!	01. 7. 11. (수) 11:00 ~ 11:20	실습교사 (지도교사: 심현정)	
대 청 소	어린이집 전체 대청소	01. 9. 1. (토) 10:00 ~ 1:30	자원봉사 학부모 전체 교사	
이비인후과 진 료	이비인후과 진료	01. 9. 26. (수) 14:00 ~ 15:30	건국대 부속병원전문 의 (학부모 자원봉사)	
치 과 진 료	구강검진 및 불소막 도포	01. 10. 8. (월) 10:00 ~ 11:30	구로 보건소	

3) 교육

구 분	내 용	일 시	강 사	비 고
부 모 교 육	아동들의 체질과 건강관리	01. 6. 19. (화) 19:30 ~ 21:30	소아과 전문의 (김유호 선생님)	
교 사 교 육	건강일지 기록법 및 발육도표 체크법	01. 5. 14. (월) 14:30 ~ 16:30	건강관리 교사 (심 현 정)	
	구급함 사용법	01. 6. 18. (월) 14:30 ~ 16:30	건강관리 교사 (심 현 정)	별첨(7)
외 부 협 력	어린이 건강과 보육교사의 역할 (보육교사회 주체 교사교육 자암 어린이집 자료제공)	01. 9. 15, 22. (토) 16:00 ~ 19:00	손영래, 김현숙 김영남, 이승희	

4) 주치의 선정

- ① 지역사회에서 지암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물색한다.
- ② 어린이가 아플 때 함께 가서 어린이집 소개, 지역사회 특성, 주치의제도에 대해 대
화한다.
- ③ 어린이집은 주치의 선정대상 병원을 계속 이용한다.
- ④ 2차 방문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⑤ 선정한다.

2001년 건강관리 연간 계획표

월	주	제	월	주	제
3월			9월	- 치과 진료 (주체: 구로구 보건소)	
4월			10월	- 운동회 - 신체검사	
5월	- 아동 기본 진료 기록부 작성, 관리하기 - 건강관리 연간 계획표 작성		11월	- 동극 (학부모 · 교사) - 부모교육	
6월	- 부모교육 (6월 19일 화요일) 주제: 아동들의 체질과 건강관리 - 신기한 우리 몸 - 건강검진 (교사)		12월	- 이만람 자랐어요	
7월	- 병원놀이 - 동극 (실습선생님) 제목: 예방 주사는 무섭지 않아!		1월	- 주치의 선정	
8월	- 청결한 위생관리 안전한 물놀이 - 대청소		2월	- 대청소	
기타	- 점심 식사 후 매일매일 양치질하기 - 바깥놀이 후 손을 깨끗이 씻기 - 동원 시 아동들의 건강상태 확인 - 건강일지 기록 - 발육도표 체크하기 - 5월 ~ 10월까지 주 1-2회 개웅산 나들이하기 - 구급함 점검 (건강관리 교사와 구급함 담당자)				

현재 이후 건강관리 추진 계획

월	날 짜	주 제	장 소	강사 및 담당교사	비 고
1	10월 29일 (월)	응급처치 구축을 위한 교사회	관장실	건강관리 교사	
2	11월 7일 (수)	응급처치에 관한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강 당	신선화 선생님	
3	11월 9일 (금)	어린이 응급처치 교육	강 당	건강관리 교사	
4	11월 28일 (수)	동극 (학부모 · 교사)	강 당	건강관리 교사	
5	12월 6일 (목)	식단평가		김유호 선생님	
6	12월 13일 (목)	혈액검사	어린이집	김유호 선생님	
7	1월 10일 (목)	주치의 2차방문	성신소아과	원장님, 건강교사	
8	2월	어린이집 대청소	어린이집 전체	서은주 교사	

기본 진료 기록부

기록 번호 :

이 름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보호자 이름 :

연락처 :

어린이 특징

체중 : kg

신장 : cm

두위 : cm

식사내용 :

출생시 체중 : kg

혈액형 :

신체적 특성 :

병명 :

과거 병력 :

예방접종내역 :

B.C.G ()

DTP (, , , ,)

소아마비 (, , , ,)

홍역, 볼거리, 풍진 (, , ,)

간염 (, , ,)

결핵반응 검사 ()

진찰소견 외형:		
영양상태:		
머리, 목, 눈, 귀:		
치아:		
가슴:	폐:	
	심장:	
	외형:	
복부:	간:	비장:
	신장:	탈장:
외부성기:	항문:	
팔과 다리:		
피부:		
신경학적 소견:		
정신, 신체적 발달:		
언어발달:	용알이:	한 단어:
	단어조합:	3년말 문장:
행동발달:		
발달연령:		
의견요약	의사 서명:	
	의료기관명:	
	날 짜:	

건강 기록부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체특징	체중:	신장:
	치아상태:	혈액형:
	선호음식:	알레르기물질:
	병명:	
과거병력:		
현병력:		
의견요약		
	작성자:	의사:
	어린이관리자:	
	관리기관명:	
	날짜:	

이웃사랑의 아이들

편집부

아래의 글은 인천의 이웃사랑어린이집의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01 말 안듣는 모기

어느 날 재운이가 모기에게 온통 물려서 등원했다.

교사 : 어휴, 재운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재운 : 제가요, 어젯밤에 모기에게 '나는 물지 말고 로봇만 물어라' 했는데 로봇은 안 물고 나만 물었어요.

02 성냥팔이 소녀

민지 : (손에 연필을 가득 쥐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교실을 돌아다니고 있다.)

교사 : 민지야, 왜 그러니? 누구랑 싸웠니?

민지 : 저는 성냥팔이 소녀예요.

03 재경이의 사랑학

김재경, 전제학 : 김영덕은 조예린 앞에서 발발 떨어. 조예린 좋아해서.

교사 : 좋아하는데 왜 발발 떨어?

김재경 : 전기가 통하니까 발발 떨죠!

04 휴식시간에...

대그룹 활동을 하기 전 아이들에게 소변을 보게 한다. 모두들 소변을 보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과 신나게 율동을 하며 노래를 하는데, 잠시 뒤에 화장실에서 지연이가 나왔다. "선생님, 팬티가 안 올라가요!"

둘둘 말린 팬티를 어렵사리 입혀주었더니 지연이 왈 "팬티 다 부서지잖아."

단풍이 곱더군요

박인해 ·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이 번호 영아들의 하루는 필자가 일본으로 연수를 가게 되어 쉽니다.

그리고 아래의 글은 본 회 홈페이지 회원 목소리 서울지부에 게시된 글입니다.

'자기 밥은 자기가 챙기자'란 구호(?) 아래 3살부터 6살까지 등에 등에 배낭 하나씩 메고 "자, 출발이다. 가자!"

버스 타고(큰 놈들), 택시 타고(작은 놈들) 도착한 관악산.

진짜 무지무지 좋더군요.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셨나요?

물위에 떠 있는 주황, 노랑, 빨강, 단풍잎을 보셨나요?

걸음걸음 밟히는 단풍잎 느껴 보셨나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솔모도, 까치도, 꿩 잡아먹는 고양이도.

부러진 나무막대기 하나씩 집어들고 낙엽 긁어 모아 산 만들고, 커다란(?) 나무로 다리 만들고 정원 꾸미고.....

작은 놈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큰 놈들은 산꼭대기까지 갔다 온다고 길 떠나 보내고 먼저 씩씩이로 돌아왔습니다.

꽃아가고픈 마음 하늘을 찔렀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특한 놈들이 어린이집으로 돌아올 때도 힘들다 않고 열심히 걷고 뛰고(관악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입구에서 산이 시작하는 데까지 무지무지 길어 내려올 땐 어른도 짜증 납니다.)

큰 놈들 진짜 꼭대기까지 올라갔나 봅니다.

5시 10분전인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덜 걱정되는데 수연이모가 무사할 지 걱정되는군요.(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산에 올라갈 때 얼마나 엄살을 떠는지)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감질나는 단풍놀이 말고 진짜로 알짜배기 단풍놀이 가고 싶다.

같이 갈 사람 없습니까?"

일을 쉬게되었을 때 춤이라도 출 것같이 좋았다.

‘이 흥가분한 기분을 누가 알아 주리오’ 하면서 폐재를 불렀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다.

소정이라도 살뜰히 보살펴주고 집안도 가꾸면서 그야말로 부지런한 가정주부로 요리해서 먹고, 쓸고 닦고, 가꾸고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지내고 싶었다.

게다가 아이들 교육을 내가 직접 하면서 이야기로만 들던 가정 유치원도 해보리라

그 동안 시간이 없어서 돌보지 못했던 내자신도 가꾸고, 읽고싶던 소설책도 싹틔 보리라.

비오는 날 호박부침 해 가지고 열집에 놀러가서 실컷 수다떨고 오리라

그 외에도 하고 싶었던 것이 너무 많았다.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는 일 아닌가.

그래서 누가 동 떠밀고 나가서 일하라고 압력을 넣어도 꿈쩍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한다.

3월부터 쉬었으니까 8개월만에 백기를 들었다.

전업주부를 누가 쉬다고 표현하는지... 가정주부 전업주부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에 출근만 안 한다 뿐이지 일의 양과 긴장감은 직장 못지 않았다. 특히 앞에서 말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고 지내려면 몸이 두 개 있어도 모자랄 지경이다.

처음엔 내가 그렇게 집안 일을 못할 줄 몰랐었다. 어린이집교사라면 기본적으로 음식 잘 하고, 아이들 잘 돌보고, 정리정돈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능숙하게 잘할 줄 알았었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먹이고 설거지하고 나면 청소, 빨래(세탁기 돌리기와 빨래 널기)하고 나면 점심때, 점심 준비, 먹이고(식사지도차원에서 식사 할 때는 다른 일 안하고 함께 자리한다) 설거지하고 나면 다시 아이들이 어지른 것 정리하고, 잠시 숨 돌릴 만하면 저녁때, 다시 저녁준비하고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예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했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집안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더니 정말 그랬다.

오빠 집에 가면 울게 성격이 깔끔해서 반짝반짝 티끌하나 없다. '집에서 놀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자만했었는데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 있는 집안에 티끌 하나 없기는 정말 힘이 든다. 정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주부는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고 긴장해야 하는지....

사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희망적이라기보다는 패배적인 마음이 더 컸다.

아무 것도 내 생각대로 된 것 없이 다른 돌파구를 찾는다. 다시 시작한 일이 나에게 얼마나 해답을 가져다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 보육교사 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을 한다. 다시 이전 생활을 그리워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좋다.

누군가 그랬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향후 10년간은 전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고

내가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 같다.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향후 10년 동안 후회 없이 전력투구 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그 답을 찾기로 했다.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고영미

경기, 근로복지공단안산어린이집

비룡소 / 조애너 콜글, 제롬 웨슬러 사진

이보라 옮김 / 7,000원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조애너 콜 글 제롬 웨슬러 사진 / 이보라 옮김

비룡소

지난 여름 어느 날 친정 아버님께서 당신 손자와 너무 닮았다며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 오셨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닮았더군요.

혼자서 노느라 심심하던 차에 아주 잘됐다 싶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식구는 강아지를 복실이라 이름짓고 베란다에서 키웠습니다.

철없는 아들놈은 처음에는 그림도 그려주고, 까까도 주며 이뻐라 하더니 싫다는 복실을 장난감 트럭에 태우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곤 했습니다. 뭐라 뭐라 말도 시켜보지만 아무 대꾸없는 복실이 알아들었는지 가끔은 막 매매도 하고 물도 뿌리고 꼬랑지도 잡아 다니고 해서 물린 적도 있었지요. (복실이는 그날 주인 아주머니인 제게 얻어맞았습니다 "절대로 물면 안 돼! 주인 아들이잖아." 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요)

아무튼 복실이 땀에 한동안은 신났지만 한달 정도 되자 알려지가 있는 우리 세 식구에게 가려움증을 잔뜩 선사해대는 바람에 넓은 마당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사를 했다가 더 좋은 시골로 보내졌습니다. 복실이와의 이별에 못내 서운해 하던 차에 서점에서 신기한 강아지 책

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등장하는 그림책은 많고 많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 그림책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금 7,000원을 주고 당장 샀지요. 조애너 콜 글에 제롬 웨슬러 사진의 "강아지가 태어났어요"라는 과학 그림 동화였습니다

임신한 어미개가 강아지를 낳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강아지를 낳는 생생한 과정, 강아지가 눈뜨고, 귀 트이고, 혼자 걷고, 먹고 목걸이하고 아이 손에 이끌려 함께 산책하기까지의 과정이 생생한 흑백 사진으로 되어있는데 편집의 섬세함 덕분인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꼭 사물화 그림책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글이 아주 정서적이면서 쉽게 설명되어있어 읽어 주는 이가 편했습니다. 주인공인 어미 개는 큰 귀와 뽀족한 주둥이, 짧은 다리의 외국 개였는데(정확한 학명을 몰라서요) 아주 귀엽고 정감이 갑니다. 강아지는 더 귀엽구요.

우리가 흔히 보는 변견(?)이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가지며 우리의 변견을 주인공으로 한 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살게 하고 싶어 안달 나신 보육교사회 회원들에게 감동을 조금은 채워줄 좋은 그림동화라 소개해 드립니다.

아기를 낳아 갓난이를 기를 때 생각이 납니다. 세상 모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요.

요즘 생명을 버리지만도 못한 존재로 보는 천인공노할 전쟁과 테러로 우울한데 이 책을 보며 아이와 함께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해 긴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랜만이라 감동적인 비디오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덴마크아동영화제 금상, 안데르센 동화상 수상의 테웨이 감독의 "피리 부는 목동"-라바필름입니다.

수목화 애니메이션인데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림은 말할 것도 없구요.

스노우맨을 보며 글이 없는 영화의 매력을 아시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꿈속을 헤메는 듯한 그림과 음악이 자연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광화문 시네큐브1층에 "아카이브"라는 곳에 가시면 무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단편영화와 만화를 그냥 보실 수도 있어요.

초방 사이트에서 장바구니에 담아 구입하실 수도 있구요. 인피니스에서 판매하니 집 근처 비디오가게에서 주문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쟁과 세계의 바람

박상희 · 회원

9월 11일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테러가 미국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미국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데 참사와 살아 남기 위해서 그 높은 빌딩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던 모습을 잊기 힘들다. 사상 유래가 없는 이 테러의 배후인물을 미국은 즉각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으로 지목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그에 대한 용징을 단행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테러공격 직후부터 예고했던 '21세기 첫 전쟁'이 드디어 발발했다. 미국은 10월 7일 밤 영국과 합동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군사시설 및 공항 등에 대한 공습을 개시해 테러 세력에 대한 물리적 용징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은 앞으로 9·11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또는 사살하고, 테러조직을 와해시키며 빈 라덴과 테러를 후원해온 어떤 정권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아프간에 대한 공격은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힘겨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국민들은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 테러로 숨진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애도의 뜻을 나타내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또 다른 무고한 생명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전쟁반대의 핵심이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다는 것이 전쟁반대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계 강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라는 곳이 어떤 나라이던가.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무차별 살상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이 장기화 될 때 자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타국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전장에 내보낸 나라가 아니던가. 자국의 이익은 쟁기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해오고, 자국에서는 단 한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던 그런 미국이 이번에는 바로 자기들의 안방에서 테러를 당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즐기며, 기껏 오락거리로 생각하던 그들이 이번에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전쟁을 일으켰다. 타국민의 이해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을

한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살성이런이 박물관

위한다는 논리에서 볼 때 일단 그 동안의 전쟁과는 달리 명분에서는 앞선 듯 하다.

그러나 전쟁은 그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테러리즘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반(反)생명적인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항구적 자유'로 명명된 이번 전쟁은 테러리즘에 대한 용징이라는 목적을 가졌음에도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며, 그 한 사람을 위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죽어가도 있다는 것에서 명분이 서지 않고 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고 민간인의 희생이 늘어날수록 반(反)테러 전선이라는 세계적인 연대가 이완되기 쉬우며, 최악의 경우 이슬람과 서방세계 간 '문명의 충돌'로 빚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 테러에 대한 대응이 보복테러의 악순환을 부르고 인류사회의 분열로 치닫는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에게는 유리한 점이 거의 없다. 과거의 소련이 경험하였듯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다고 하여도 험악한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릴라전에 능하고 이 지대를 잘 아는 아프간인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테러전선에서도 아직은 영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각국을 열심히 다니면서 전쟁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만 영국 내에서도 전쟁반대론이 상당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못 할 것이며, 동조하던 아랍권 국가에서도 이슬람권의 단결을 부르짖는 자국의 국민들의 이해를 계속 외면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도 전쟁에 승리할 경우 무기판매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전쟁에 패할 경우 그 또한 장담하기 힘든 상태이고 전쟁부담금을 각국에서 지원하는데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작용하고 있어 그리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반전의 움직임이 이제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고립되어 가고 있고, 어느 한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계속 이 전쟁을 이끌 수 있을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관심이 간다.

이제라도 미국은 전쟁을 그만두고 그 동안 자행했던 많은 악행들에 대해 겉혀히 반성하는 마음과 사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인류가 공히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을 미국이 먼저 나서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

박물관 사이트 안내

편집부

아래의 글은 서울시 후원으로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에서 제작한 '다양한 보육 활동을 위한 인터넷 길라잡이'에 실린 글로 이 자료집은 서울지역의 어린이집으로만 배포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어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과 자료회원들께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이란 예술, 역사, 미술, 과학, 기술에 관한 수집품 및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표본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며 일반 공중의 오락과 교육을 위하여 공개 전시함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하는 항구적인 건물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박물관을 가서 수집품과 전시물 즉, 구체적 유물을 보면서 경험 학습(보고, 듣고, 체험해 보고,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사고 자체의 개발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역사, 예술, 과학,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무한한 교육적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교육방법의 한 형태입니다.

◆ 박물관 장소 선택시 유의 사항

- 거리와 시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교사가 미리 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연락을 취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전 정보를 수집합니다.
- 최소 일주일전에 예약합니다.
- 안내도우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를 신청합니다.
- 화장실, 식수 등 유아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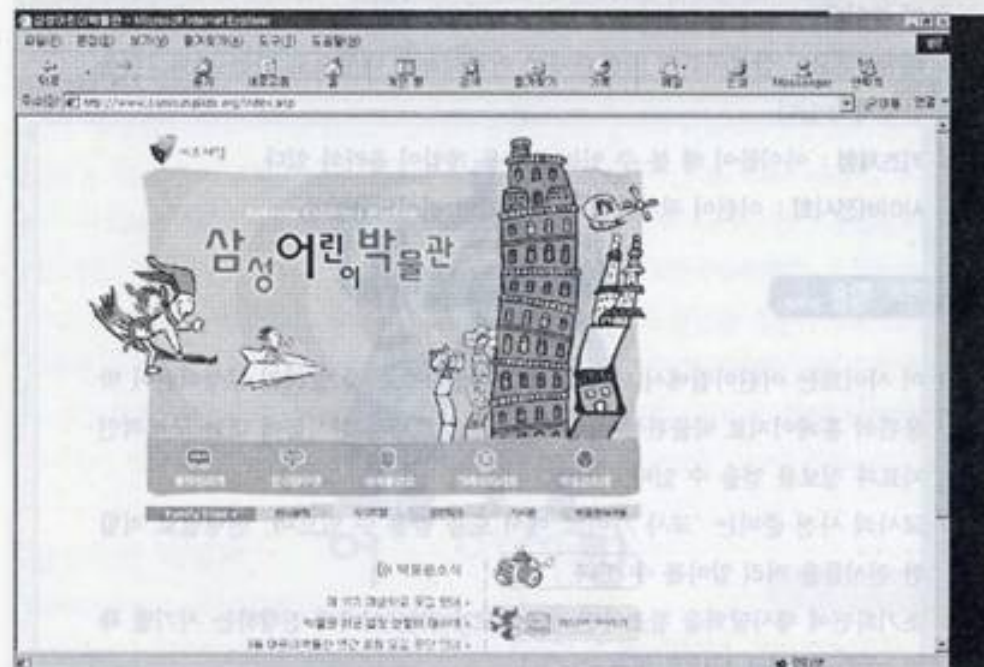
평동어린이집 자료집
[밖으로 나가 놀자] 중에서

박물관교육 · 1



삼성어린이 박물관

<http://www.samsungkids.org>



사이트 소개 >>>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나라 최초의 체험식 박물관인 삼성문화재단 홈페이지. 이곳은 어린이들이 직접 물체를 만져보고 탐색하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험식 박물관이다.

박물관 사이트 안내

1. 주요 메뉴

주요 메뉴 >>>

- 출발전 체크 : 관람안내에는 관람시간과 단체관람, 편의시설, 찾아오시는 길 등이 안내되어있고, 관람법에서는 방문전, 방문중, 방문후에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와 활동 등이 수록되어있다.
- 전시장구경 : 부모, 교사,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시장 구경에 대한 가이드를 꾸며 놓았다.
- 배워볼까요 : 삼성어린이 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해 놓았다.
- 키즈체험 : 아이들이 해 볼 수 있는 교육용 게임이 올라와 있다.
- 사이버전시회 : 어린이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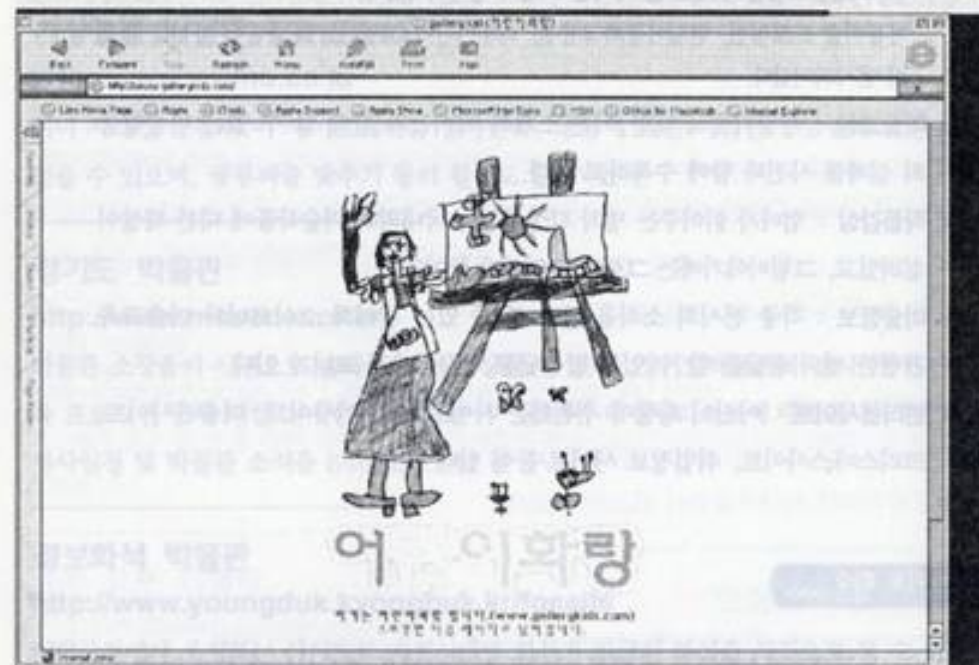
사이트 활용 >>>

- 이 사이트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견학하는 장소로 잘 알려진 삼성어린이 박물관의 홈페이지로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전시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교사의 사전 준비는 '교사 가이드'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로 적합한 전시물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 초기화면에 행사달력을 참조하면 방문하고자 하는 시기에 진행되는 시기별 특별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화랑

<http://www.gallerykids.com>



사이트 소개 >>>

어린이 화랑 전시관 사이트로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활동과 감상법, 미술 정보 등 아동미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다. 미술 정보 외에 일반적인 교육정보와 관련 사이트도 유용하다.

주요 메뉴 >>>

어린이전시관

- 베이비갤러리 :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한 다양한 미술놀이 경험담을 볼 수 있다.
-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 : 아이들 그림과 더불어 아이들이 설명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 봄, 겨울, 느낌을 주제로 한 아이들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 아동미술 드로잉전, 한일아동화교류전, 리투아니아 그림전 등에 출품된 아이들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미술교실 : 아동미술에 대한 이론 소개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술활동의 실재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작품감상 : 엄마가 읽어주는 명작 감상에서는 국내외의 미술작품에 대한 해설이 실려있고, 그림이야기에는 그림지도 일기가 들어 있다.

미술정보 : 각종 전시회 소식을 알아 볼 수 있는 전시회 소식코너와 미술교육 관련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알콩달콩 미술이야기 코너가 있다.

인터넷사이트 : 어린이 화랑이 추천하는 사이트, 어린이사이트, 미술관사이트, 크리스마스사이트, 취업정보 사이트 등이 있다.

사이트 활용 >>>

- 이 사이트는 미술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아이들과 미리 명화감상의 시간을 가지고 직접 미술관을 방문하여 그 그림을 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미술관을 더 친밀한 공간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 베이비갤러리나 미술교실에서 제공하는 미술활동의 실재에서 제시하는 미술활동을 응용해서 더욱 풍부한 미술활동을 해 볼 수 있다.
- 인터넷사이트에서 자료를 찾거나 사이트를 추천 받은 곳이 링크 되어 있어 필요한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박물관 교육 관련사이트

국립박물관에 비해 특수한 영역의 박물관은 비교적 찾기 어렵다. 관심 있는 주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특수한 박물관 사이트를 참고해 보자.

가상공룡 박물관 VR Dino

<http://www.vrdino.co.kr>

이미 사라진 공룡이 이 사이트에서는 살아난다. 공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공룡퍼즐 맞추기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다.

경기도 박물관

<http://www.musenet.or.kr>

박물관 소장품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어 감상할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의 전시, 공연,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메일링리스트에 주소를 남기면 박물관 행사일정 및 박물관 소식을 E-mail로 받아 볼 수 있다.

경보화석 박물관

<http://www.youngduk.kyongbuk.kr/fossils>

영덕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치질시대별 화석과 한국의 화석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어린이박물관 메뉴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다.

국립국악원

<http://www.ncktpa.go.kr/walk3.htm>

국립국악원 내에 국악원 산책메뉴에서 국악박물관을 선택하면 국악박물관에 관한 안내를 볼 수 있다.



나비우표 박물관

<http://www.butterflystamps.co.kr/>

300여 나라 5000여 종의 나비를 볼 수 있으며, 나비의 종류와 일생, 생활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

독립기념관

<http://www.independence.or.kr>

3D사이버전시관에서 3차원 동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가상 전시관을 실제 관람하듯이 마우스 스크롤로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은 동영상 하단의 아이콘을 누른 후 확대 축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LG 사이언스 홀

http://www.lg.co.kr/h_lg/science

국내외의 과학관과 국내박물관이 링크되어 있다.

메가람 자연사 박물관

http://megalam.chollian.net/natural_history_museum/start.htm

생태계의 생물요소를 대표하는 동물과 식물들을 모아놓고 전시, 연구하는 사이버 박물관이다. 식물과 동물의 사진과 함께 설명을 볼 수 있다.

목아 불교 박물관

<http://www.moka.or.kr>

불교관련 문화유산과 현대의 불교조각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경새재 박물관

<http://museum.mungyong.net>

경북 문경시 문경을 상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4200여점으로 대부분의 유물이 지역 주민들의 기증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부산 사이버 해양 박물관

<http://seaworld.pusan.kr>

해양과 관련한 선박, 인물, 관광, 역사에 관한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하여 놓았으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박물관 메뉴도 있다.

사이버 지도 박물관

<http://www.ngi.go.kr/cyber/cyber.htm>

국립지리원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우리 나라 및 세계의 현존하는 역사별 고지도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사이버 측량체험관이 준비중이다.

산림 박물관

<http://www.foa.go.kr> : 9090/museum/mus000.htm

산림박물관은 임업에 대한 국민계도와 현장학습교육 그리고 산림사료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개관하였다.

삼성 교통 박물관

<http://museum.samsungfire.com>

삼성교통박물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교통 전문 박물관으로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인근에 있다. 소장품 메뉴에서 명차와 다른 운송기관들에 대한 사진자료를 볼 수 있다.

성서 유물 박물관

<http://www.apm.or.kr>

기독교 성서의 유물, 구약시대, 신약시대, 로마시대, 이집트 유물들이 전시되어있다.

세종 돌 박물관

<http://www.oldstonemuseum.com>

옛 돌 조각의 실물 전시를 통해 선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사이버박물관에서는 옛 돌 조각의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다.



박물관 교육 관련사이트

영월 책 박물관

<http://www.bookmuseum.co.kr>

아름다운책, 어린이책, 개화기 사진 등이 전시되어있다.

은암 자연과학 박물관

<http://huniv.hongik.ac.kr/~sexykko>

마포구에 위치한 자연사박물관의 홈페이지로 조류, 곤충, 포유류, 패류, 광석등의 전시물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http://home.ewha.ac.kr/~nhm>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자료를 볼 수 있다.

전쟁기념관

<http://warmemo.co.kr>

조상들이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사용하였던 각종 유물과 호국전쟁의 실재를 보여주는 전시를 하고 있다.

중남미 문화원

<http://galaxy.channeli.net/latina>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중남미 지역 화가들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지구촌 민속 박물관

<http://www.gvfm.org>

전시 되어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유물들을 사진자료로 볼 수 있다.



늘 처음처럼

철도 박물관

<http://www.korail.go.kr/museum/index.html>

철도가 개통된 이래 100년 간의 역사 동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초전섬유 박물관

<http://www.jculture.co.kr/museum>

다양한 국내외 섬유예술작품들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섬유예술박물관으로 인터넷갤러리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풀무원 김치 박물관

<http://www.kimchimuseum.co.kr/index.asp>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인 김치의 문화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내외국인에게 홍보하고자 설립된 김치박물관 안내 사이트이다. 관련사이트에서 김치에 관련한 다른 사이트를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의 고가구 박물관

<http://www.design.cau.ac.kr/museum/1>

한국의 고목가구에 대한 역사와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 소장품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고건축 박물관

www.archimuseum.com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을 비롯한 20여 점의 모형 전시물이 있다. 전시물은 사진으로 볼 수 있다.

한국통신박물관

<http://webserver.yosu.ac.kr/~elect/museum/intro/main.htm>

100년이 넘는 전기통신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한 박물관이다.



박물관 교육 관련사이트

한남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http://bada.hannam.ac.kr/~museum>

자연사박물관은 식물, 동물, 곤충, 화석 및 자연사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 전시하고 있다.

한솔 종이 박물관

<http://www.papermuseum.co.kr/>

종이이전의 세계, 종이와 문화, 한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며, 종이접기 방법을 감상할 수 있다.

호림 박물관

<http://www.design.cau.ac.kr/museum/9>

호림박물관에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과 그에 따른 고려청자 연구분야,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래픽과 설명자료로 소개하고 있다.

화약 박물관

<http://www.hanwha.co.kr/hanwha/explosive.htm>

화약의 역사,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화폐 박물관

<http://www.komsep.com/museum/index.html>

우리나라 화폐제조 역사와 한국조폐공사의 발전사적 등 국내외 화폐문화의 사료와 연혁을 정리하고 있다. 동서양의 화폐, 한국과 북한의 화폐를 볼 수 있다.

늘 처음처럼

김숙연 · 부산, 아이돌 놀이방

아래의 글은 부산시부소식지 가을호에 실린 글입니다.

보육교사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동관에 대해서 쓰라니 무척 당황했습니다. 아직도 어설픈 내 모습에 많은 반성과 배움의 깊이를 더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이 글을 쓰는 날 조심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지만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전 제가 바라고 생각하는 아이 모습은 '아이다운 아이, 놀 줄 아는 아이, 더불어 사는 아이, 일을 할 줄 아는 아이' 였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학원, 학습지 등등 늘 시간에 쫓겨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뛰어 놀 시기에 공부, 공부, 마치 공부만 잘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놀이를 잃어버린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실컷 뛰놀고 맘껏 내면세계를 표출할 수 있는 아이야말로 생명의 소중함과 아이다운 순진함,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자연히 몸에 배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늦은 봄나들이를 다녀오면서였습니다. 산속에서 한바탕 놀이를 벌이고 돌아가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온 몸에 두드러기 증세와 함께 손으로 긁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웬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병원 치료를 받고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비온 뒤 약수터 웅덩이에 퐁퐁 뛰어들며 물놀이를 즐겼더니 또다시 두드러기가 쑥쑥. 몸 전체가 두드러기 자국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은 흠터가 사라졌지만 체질적으로 피부가 약한 아이라 나들이 길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거기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이마에 혹이 커다랗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죠. 그 애도 놀랐는지 잠시 날 쳐다보더니 흠

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선생님 저기서 뛰어 내렸어요." 얼굴엔 해 났다는 뿌듯한 자부심도 서려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모험심과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만약 다치기라고 한다면... 하는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그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면 어떡하니? 조심해야지!" 한마디했죠. (항상 뛰어 내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뛰었기 때문에 야단 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내가 한 말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미안한지.

이런 저런 이유로 나들이 길이 주춤해지고 소극적으로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의 모험심을 어느 정도 선에서 기준을 재고 제지를 해야 할 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모임 때 이 안전을 올리기로 했어요. 삼락동 주말농장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금방 뽑은 채소들과 삼겹살의 어우러짐을 만끽하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모임을 가진 탓이기도 하겠지만 무척 분위기가 좋았어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서로의 생각들이 오고가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선생님 방식대로 하세요" 하는 부모님들의 격려를 통해 한층 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보육에서 탈피를 하여 지금은 작은 점포를 얻어 곧 놀이방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들이 길을 고려하여 건물을 얻으려고 하니 마땅한 게 나오질 않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작은 건물이나마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 저를 비롯한 몇 안 되는 부모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부모 모임이 서로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야 조금씩 느낍니다.

그리고 놀이방이 조금씩 커져서 어린이집이 된다면 마당이 넓은 주택에서 텃밭과 애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기르며 엄마 같은 선생님이 되어 소규모의 어린이집을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개개인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부모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자연의 아이로 키우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지금의 제 소망이 돈과 명예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 볼 수 있도록 "늘 처음처럼"을 되내며 시작과 끝이 같아 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진실 · 인천, 샘터어린이집

까치, 나비, 벌, 개미, 닭, 염소, 방울토마토, 호박, 고추, 들꽃, 나무...

지난 주말 세 살배기 제 딸아이가 시골에서 보고 온 것들입니다.

그림책에서만 봤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 신기한지 연신 두리번두리번, 동산에 올라가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기 손보다 더 큰 돌멩이를 주워 던져보고, 나비 잡으러 다닌다고 뒤통 뒤통, 온통 흙투성이였지만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씩씩해 보였습니다.

제게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일곱 살 기린반 친구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 '바깥나들이'를 통해 교실에서 하기 힘든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맘껏 뛰노는 사이, 자연을 느끼고, 생각을 넓히며 신체능력도 발달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 벌레와 들꽃, 여러 가지 사물을 관찰합니다. 또 아이들은 무심코 지나버리는 작은 순간도 하나의 큰 사건으로 기억하며 매우 큰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토끼는 토끼풀을 먹는데, 강아지풀은 정말 강아지가 먹나요?' '무궁화 꽃잎 안에 보라색이 번져 있어요' '어? 개미가 흙을 나르고 있다. 개미집을 파보자' '나뭇잎은 왜 가을이 되며 다 떨어지지? 아 그건 나무가 겨울 준비하려고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야. 추우니까 영양분이 저축하려고 그러~' 나들이 가면 크는 아이들과 함께 어른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반 한 아이는 종종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오는데, 다녀와서 저에게,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왔는지 말해줍니다.

얼마 전 '선생님! 일요일에 영종도에 갔었는데요. 비가 안 와서 논이 다 갈라졌어요' 하며 심각한 얼굴로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TV뉴스를 관심 있게 보며 '아빠! 오늘 비가 와서 이제 배추값 내렸어요?' TV에서 개울물이 흐르는 장면을 보고 '저 물이 비가 되어서 죽죽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한동안 '가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이들의 가장 큰 놀이터이자 학습장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살아있는 교육처럼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교육의 열풍 속에서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우리네 아이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어린이집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중에 하루쯤은 소리도 크게 지르고 힘껏 내달려 보면서 건고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말을 아이에 입장에서 귀 기울려 들어주시고, 물어오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나들이 가서 맨발로 흙 밟아보기, 풀피리 만들기, 나뭇잎, 꽃잎 말리기, 평평한 돌에 그림 그리보기, 나뭇잎에 종이 대고 문질러 편지지 만들기 등을 해보고요.

한 장소를 정해서 계절별로 갔을 경우에 보여지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다녀와서는 잘 몰랐던 식물, 동물을 도감이나 백과사전에서 찾아보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부담 없이 가 볼 수 있는 가까운 '열우물 약수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말농장'에 심어놓은 여러 채소와 식물들을 관찰하고, 뒷동산에 올라 '야호' 소리를 질러보시고, 시원한 약수 한잔에 목을 축이고 오지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나무 밑에 누워서 가지와 앞 사이로 퍼져 나오는 햇살을 느낍니다.

인터넷 활용 현장활동 현장사례공모전

[인터넷에서 놀자]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에서는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인터넷 길라잡이]를 무료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합니다.

- 대상 : [인터넷 길라잡이]를 배포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 접수 : 2001년 10월24일~11월30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100-391)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한국보육교사회 (11월30일 당일소인에 한함)
E-mail접수 : sdta@jinbo.net

- 문의전화 : 02-2271-1548(담당자: 이선주)
- 시상 : 최우수상1명 / 우수상2명 / 가작3명

◆ 당선작은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본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 회에 있습니다.

제1기 말뚝이 문화체험 교실 안내

살아있는 문화학습프로그램, 말뚝이 문화체험 교실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상: 초등 3학년~6학년

기간: 2001년 12월~2002년 2월 (3개월 간 총 3회)

모집인원: 30명

참가비: 12월 공연 50,000원(1회), 3개월 접수는 일반 135,000원, 말뚝이 회원 130,000원-매월 공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음(공연관람료, 교통비, 중식, 보험료, 공연상품권, 수업자료 포함)

참가방법: 전화로 신청 후 은행 입금 선착순

접수 계좌번호

기업은행: 133-029367-02-011

서울은행: 37804-3257308 (예금주 최숙자)

말뚝이문화학습담당자: 김혜영 016-9679-7750

빨간모자(우리 인형극단)

아이들의 영원한 명작 <빨간 모자>가 뮤지컬로 인형극으로 제작되었다. 인형극 전문극단이 제작한 작품으로 저학년에게 권할만하다.

기간: 11. 2(금)~11. 30(금)/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토, 일, 공휴일 오후 12시 30분·2시

출매: 넷째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샘터파랑새극장

입장료: 일반 6,000원·단체 4,000원

☎ 420-0360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연주회 <꾸러기음악회>

어린이들의 클래식 친구 꾸러기 음악회가 이 달에는 '음악 동물원'을 주제로 관객과 만난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과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제

1곡 사자왕의 행진', '제2곡 수탉과 암탉' 등 재미있고 살아있는 클래식을 만날 수 있으며 지휘자의 설명으로 진행된다. 이 달에는 공연 관람시 캐스터네츠와 오카리나를 들고 가서 함께 연주하는 시간을 가정으로 써 살아있는 공연을 체험하실 수 있다.

일시: 11. 24(토) 오후 3시·6시/11. 25(일) 오후 3시

장소: 추계예술대학 콘서트홀

입장료: A석 20,000원·B석 15,000원·C석 10,000원

☎ 3141-0651 (www.toyconcert.co.kr)

*공연장 찾아가기: 지하철 2호선 아현역 하차 1번 출구 굴다리 지남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한마당

매월 넷째 토요일 공연되는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한마당'은 이야기와 영상과 음악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피아노 연주와 이야기로 진행되는 "피터와 늑대", 작곡가 신동일이 그림책 작가 류재수, 이호백과 함께 만든 "노란우산"과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중심으로 피아노 연주곡과 동요 등으로 꾸며지게 된다.

일시: 11. 24(토) 오후 4시·6시

장소: 서초동 판아트홀

입장료: 어른 10,000원·면3세~초등학생 5,000원

☎ 016-383-5717 (http://minum.or.kr/piano)

*공연장 찾아가기: 판아트홀-지하철 3호선 2호선 환승역 교대역 하차 14번 출구 하나은행 사거리 우회전 한미은행 옆 LG25시와 코닥칼라 사이 (525-2287)

삼성어린이박물관-제8기 과학교실

일시: ~12. 19(수)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

대상: 초등4~6학년(24명 정원)

장소: 어린이박물관 실험실

참가비: 120,000원

내용: 재미있는 과학 실험 및 지구의 환경변화와 생태계 항공의 원리 등 공부

문의: 424-5864~7(교한5306)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남산한옥마을에서는 옛 용기들을 전시해 놓은 전통공예 전시관과 관광기념상품을 항상 전시, 판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와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명절을 준비한 특별 행사도 있다.

입장료 무료

시간: 하절기 9시~6시/동절기 9시~5시/매주 화요일 휴관

☎ 2264-4412, 3

*찾아가기: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 하차, 3번 중대부속병원

경상감영설치 400주년기념

'대구 5000년' 특별전

연 제: 2001. 9. 20 ~ 2001. 12. 9

아디서: 국립대구박물관

내 용:

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최신 발굴자료와 경상감영과 관련된 역사자료 등의 300점 이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대구의 역사를 3000년의 역사에서 5000년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상동에서 수집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편과 서변동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유

물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또 비산동출토 鳥形청동칼자루장식(국보 137호) 등의 청동유물 같이 대구지역에서 발굴되거나 수습되었던 중요 유물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개된다.

또한 대구를 영남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상감영과 관련된 서적, 경상감영이 발행한 화폐, 과거시험 답안지, 경상감사 인수인계서 등의 각종 역사문서도 전시되어 있다.

중요소식

- 9월 4일 ~6일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무국장 수련회가 무주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본 회에서는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조직의 갈등 중재와 협상에 대해 공부하고 왔습니다.
- 9월5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김홍신의원실과 만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율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9월8일 인천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지역 단체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 9월10일 민주노동당 여성국 주최로 진행된 보육문제와 법제정에 대한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과 보육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9월14일 여성부장관 주최로 여성단체장 초청 오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부가 성인여성중심으로만이 아닌 가족의 문제와 아동의 보호, 양육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한명숙 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 9월 18일 관악지역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있었으며 이경녀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9월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보육사업 평가와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에 대한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9월20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각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평화침묵시위"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는 항상 어린이와 여성이 될 수밖에 없기에 테러에는 반대하지만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 9월20일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주최한 홈페이지 운영과 중앙보육정보센터 역할에 대한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9월21일 여연 복지위원회 가족분과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육아문제 포함)에 대해 공부하고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9월 22일, 23일에는 방학3동 어린이집과 씨썬이 어린이집에서 진행 한 TV안보기 운동을 정리하여 방학3동어린이집과 보라매 공원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를 위해 수고하신 방학3동 어린이집과 씨썬이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감사드리며 서울시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 9월 15,16,22,23일에는 보육교사의 인터넷 활용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역시 서울시에서 후원

- 해 주셨고 강의를 해주신 김지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10월5일 본회부설기관인 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들과의 만남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작업의 진행과 이후 보육정보연구소의 활동을 논의하였습니다.
- 10월9일 김홍신 의원실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0월10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보육정책개발을 위한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0월15일 이윤경 공동대표가 여성부 정책개발평가담당관실과 아동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여성부의 역할을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10월17일 YMCA녹색가게사무국 주최로 열린 "유아용품 재사용운동 워크샵"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19일 일본의 '희망의문' 보육소 대표 이사인 히구치 슈이치 선생님을 모시고 '지역복지센터로서의 보육시설의 역할에 관한 시설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 10월 20일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2001 장애통합보육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사, 시설장 연수 '장애아동 이해하기와 통합보육실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날 약 80여명의 보육교사와 시설장이
- 참석하였으며 강의를 해 주신 히구치 슈이치님과 윤선아, 이창미, 조선경, 김수진, 정미란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통역을 해 주신 정현경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10월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복지위소속인 김홍신의원실, 교육위소속인 김경천의원실과의 면담에 여연과 함께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0월29일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주최의 학술세미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보육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29일 관악지역의 보육모임에 이경녀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관악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관악지역의 바람직한 보육환경 만들기 위한 사랑방 좌담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10월 29일~ 11월 12일 간 한일보육교류의 일환으로 일본 보육소 시설 연수에 본회에서는 황호정, 구미진, 김언령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 10월 31일 본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주최, 여성부 후원으로 '가정과 직장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성천 교수와 서문희 연구위원, 윤선영 교수님이 각각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지원 서비스의 과제', '보육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 '보육지원을 위

한 외국의 제도'를 주제발표 하였으며 국회의원 김홍신, 장성자 여성부 정책실장, 신언항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윤경 본회 공동대표가 토론해 주셨습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9월 15일, 22일 4시 ~ 7시에 서울지부 회원 무료 교육강좌 '아이들의 건강과 교사의 역할'을 실시했습니다.
- 9월 16일 보라매공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캠페인'에 서울지부 회원과 쉼썩이어린이집 부모들과 함께 했습니다. 플랜카드도 걸고, 풍선 등을 나누어주면서 홍보하였습니다.
- 10월 27일 정회원무료교육 MBTI와 위크샵이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진행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지부

- 10월 14일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새롭게 박물관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연순 선생님(019-308-1986)께 연락해 주세요.

- 9월부터 시작한 쟁과리 강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9월 8일 인천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 10월 20일 '한지를 이용한 미술활동'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부산지부

- 10월 21일 2001년 회원 가을나들이로 낙동강하구 진우도, 갯벌기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13일 사상 르네상스 홈플러스 할인 매장 앞에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10월 26일 '미술치료교육'을 주제로 회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 교사를 위한 생태환경 교육강좌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월 6일(목)-자연물 놀잇감 만들기2 (동구미 만들기)
10월 21일(금)-한지를 이용한 보자기 만들기
- 9월 23일(일)에 어린이 통일인형극이 민주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축하합니다

- 인천의 이경미 선생님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 수원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주영 선생님이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 부산의 김정현 선생님이 8월에 딸을 낳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이번 달에는 딸 소식이 많네요. 모두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잘 사세요

- 10월 7일 서울의 김미나 선생님이 결혼했습니다.
- 10월 21일 부산의 김진영 선생님이 결혼했습니다.
- 10월 14일 부산의 김영수 선생님이 결혼했습니다. 축하드리며 이참에 남편들을 든든한 후원자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부산의 김경혜 선생님의 남편이신 강희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경혜 선생님 힘내시고 강희완님의 명복을 빕니다.
- 서울의 이준희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환영합니다.

- 부산에 대거 신입회원이 들어 왔네요. 천정하, 차수련, 김진영, 정순영, 김정숙, 김미경, 김상연, 김주리 선생님입니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회원 활동 열심히 하세요.

회비를 내셨습니다.

- 〈서울지부〉 9월 완납
- 〈부산지부〉 9월 완납
- 〈인천지부〉 9월 완납
- 〈광주전남〉 7월 완납
- 〈경기지부〉 8월 일부
- 〈평생회원〉 박정에 100만원
- 〈자료회원〉 서재림, 윤형영, 대동대학
- 〈후원해 주셨습니다〉 은수미 2만원, 김희자 2만원, 서은희 5만원, 정현경 5만원, 이윤경 5만원

본회 9·10월 월동일지

9월

- 4~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수련회
- 12일 집행위
- 18일 관악지역보육문제에 관한 회의
- 15,16,22,23일 인터넷 정보 활용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교육
- 22, 23일 TV하루 안 보기 운동 전시회
- 24일 보육발전위원회 회의

10월

- 10일 집행위
- 6,13, 20,27일 인터넷 정보 활용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교육
- 13일 제1차 총준위 회의
- 19일 지역복지센터로서의 보육시설의 역할 시설장 간담회
- 20일 장애통합보육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사, 시설장 연수
- 29일 관악지역보육문제에 관한 회의
- 31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토론회
- 31일 집행위

편집부에서

통권 82호부터 연재하고 있는 '세계의 보육현장'은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또 지나갑니다. 제가 우리네 아이들을 만들기 시작한 지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네 아이들에 대한 의견을 간간히 듣기는 했지만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애기를 제대로 귀담아 들을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호에는 별지로 여러분의 우리네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듣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꼭 의견을 보내주세요.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과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관매자료 구입 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